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진희

2022년 8월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고 관 우

김 진 희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김진희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상 미	
위 원	남 진 열	
위 원	고 관 우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22년 8월

The Impacts of Occupational values and
Self-esteem of Middle-aged Jeju women on
Successful Aging.

Kim-Jin Hee

(Supervised by professor Kwan-Woo K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Welfare

2022.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ublic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CIAL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6
II. 이론적 배경	7
1. 중년여성	7
1) 중년여성의 개념	7
2) 중년여성의 특성	9
3) 제주여성의 특징	11
2. 직업가치관	13
1) 직업가치관의 개념	13
2) 직업가치관의 선행연구 고찰	14
3. 자아존중감	16
1) 자아존중감의 개념	16
2) 자아존중감의 선행연구 고찰	18
4. 성공적 노화	20
1) 성공적 노화의 개념	20
2)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23
3) 성공적 노화의 선행연구 고찰	25
III. 연구방법	27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7
2. 연구가설 및 모형	27
3. 측정도구	29
4. 분석방법	32

IV. 연구결과	33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3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36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집단 간 차이분석	37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68
5.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70
V. 결론 및 논의	84
1. 결론	84
2. 논의	87
참고문헌	89
ABSTRACT	103
부록 <설문지>	106

<표목차>

<표 1-1> 직업가치관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29
<표 1-2> 자아존중감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30
<표 1-3> 성공적 노화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31
<표 2-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4
<표 2-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37
<표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질적 보상 추구 차이분석	39
<표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정성 추구 차이분석	41
<표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의 균형 추구 차이분석	43
<표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능력 발휘 추구 차이분석	45
<표 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전체) 차이분석	47
<표 3-6>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주의 차이분석	49
<표 3-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주의 차이분석	51
<표 3-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전체) 차이분석	53
<표 3-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율적인 삶 차이분석	55
<표 3-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완성지향 차이분석	57
<표 3-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극적 인생 참여 차이분석	59
<표 3-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만족 차이분석	61
<표 3-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수용 차이분석	63
<표 3-1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타인수용 차이분석	65
<표 3-1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전체) 차이분석	67
<표 3-16>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69
<표 4-1>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성공적 노화(전체)에 미치는 영향 ..	70
<표 4-2>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자율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	72
<표 4-3>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자기완성 지향에 미치는 영향 ..	74
<표 4-4>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적극적 인생 참여에 미치는 영향 ..	76
<표 4-5>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자녀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 ..	78
<표 4-6>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 ..	80
<표 4-7>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타인수용에 미치는 영향 ..	82

<그림목차>

[그림 1]	28
--------------	----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김진희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고관우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파악하여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노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22년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주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40세에서 64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350부와 온라인 50부 총 400부를 배포하였다. 총 400부 중 오프라인 설문 330부, 온라인 설문 28부 총 358부를 회수하여 이중 연구대상 연령이 초과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불성실한 설문 14부를 제외한 총 34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4.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운데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이 높은 경우와 본인의 정기적 급여 생활을 하는 것이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 성공적 노화 하위변인에 전체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읍면동 거주 지역에서 동지역이 높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노후준비 시기는 20대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성공적 노화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성공적 노화(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직업가치관 중에서는 능력 발휘 추구하고 자아존중감 중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자아존중감 중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완성 지향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직업가치관 중에서는 능력 발휘 추구하고 자아존중감 중 개인주의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 인생 참여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자아존중감 중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자아존중감 중 집단주의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직업가치관 중에서는 능력 발휘 추구하고 자아존중감 중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수용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직업가치관 중에서는 능력 발휘 추구하고 자아존중감 중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중년여성들에게는 고령사회에서의 사회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키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다가올 노년에 대비하여 새로운 역할을 미리 준비하여 노화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고, 궁극적으로 중년여성의 능력 발휘 추구하고 자아존중감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은 인간을 지적, 정서적, 기술적으로 새롭게 하고 긍정적 자아 정체감 확립에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인 노화 적응에 중요한 자아존중감 고취를 위한 변수로 교육이 작용함에 따라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수준을 높여 성공적 노화로의 개입 방안 실천이 필요하다. 제주지역 중년여성들의 성공적 노화의 변인들을 찾는 연구들은 후속적으로 시급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중년여성, 직업가치관, 자아존중감, 성공적 노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 중년기 여성들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당면하였다. 고령화에 따른 개인이나 사회의 인식 변화로 단지 오래 사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길어진 노년기를 좀 더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나이 들어가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안정숙, 2010; 황승희, 2012; 조진희, 2013; 강기은, 2014; 이근영, 2020; 안은미, 2021).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중년기 여성들은 노년기를 앞둔 상태에서 자신의 노후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안은미, 2021). 고령화와 장수화가 가속되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여성 노인의 경우 남성보다 더 오래 살고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로 인하여 노후에 혼자 남겨지는 기간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강기은, 2014).

최근 우리나라 중년여성(40세~64세) 인구는 전체 여성 인구 중 2011년에는 9,267,535명으로 36%, 2016년에는 10,099,285명으로 39%, 2021년에는 10,376,116명으로 40%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2020년 여성 연령별 기대여명은 40세는 46년을, 50세는 36.4년을, 60세는 27년을 각각 더 살기를 기대하고, 성별 기대수명은 남성이 80.5세 여성이 86.5세로 남성 보다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6세 높다(통계청, 2021). 한국의 사회지표 측면에서도 여성들의 노년기가 상대적으로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년 여성의 노후준비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에 비해 제주지역에서는 2014년에 전체 인구의 14.5%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21).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특히 여성 노인은 경

제한 여건, 질병 문제, 노후적응 문제가 남성 노인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정순돌, 2007; 박영민, 2011). 이러한 여성의 취약성은 전 생애주기를 통해 지속되므로 여성 노인이 겪는 문제는 노년기라는 생애주기상의 특정 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의 생애주기 단계에서 누적된 문제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심화 된 결과이기도 하다(강기은, 2014).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차원 등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 되는 비중이 큰 노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황승희, 2012).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중년기 이전부터 노후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이근영, 2020). 또한, 중년층은 노년기를 건강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보내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게 보임에 따라 성공적 노화는 중년기 성인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김연지 외, 2018). 즉, 성공적 노화 인식을 위한 노년기의 준비는 노년기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긍정적 정서 상태에 도달했을 때 성공적으로 노화를 인식할 수 있어 전 생애 발달관점에서 중년기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김보미, 2018; 이해정, 2021).

중년기는 개인적 발달 과정으로 볼 때 신체의 노화가 시작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다. 중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변화들은 개인의 심리적 균형과 안정감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년기에 접어든 여성들은 건강 문제, 갱년기, 신체와 성생활에 대한 걱정, 부모님의 건강 악화, 빈둥지증후군 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중년기를 얼마나 적절하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울(depression), 쇠퇴(decline), 의존(dependency), 질병(disease), 노쇠(decrepitude)로 진행될 수도 있고 거듭남(rebirth), 재활력(revitalization), 재생(regeneration) 등의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백인자, 2016). 중년기는 지금까지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점검하고 노년기를 준비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가진 미래 고령사회의 주력 세대이다. 본격적인 신체적 노화를 겪기 시작하면서 노화에 대한 두려움과 상대적 상실감 등으로 심각한 정서적 혼란 상황을 겪고 있다(이혜진, 2018; 황길주, 2020). 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중년여성은 노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다양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중년기 여성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과 은퇴 준비 등의 노후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이 요구된다. 중년기는 곧 맞이하게 될 노년기를 더 행복하고 편안하며 의미 있게 보내면서 남은 삶을 잘 통합하며 마무리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안은미, 2021). 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중·장년기 성인이 노화에 대한 인지적 특성을 이해하여 성공적인 노화 인식을 갖고 노년기를 준비하는 것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영옥, 2020).

중년기의 여성들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자신의 삶과 그들의 가족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직업의 가치와 목표를 재검토하며, 스스로의 능력을 가늠해보면서 자기개발, 일, 남편(파트너),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취업을 생각하기도 한다. 이는 그들이 직업을 통해 다음 인생구조(life structure)라는 삶의 전환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년기는 노후에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변화, 심리적 변화, 경제적 변화, 사회적 변화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노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백인자, 2016).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과거 여성에 대한 성차별, 취업기회의 제한 등 사회적으로 여성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가사노동의 기계화에 의해 늘어난 여유시간, 향상된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 사회참여 확대, 사회적 지위 및 가치관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과거의 의존적이었던 노년기의 삶이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특히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조진희, 2013).

성공적인 노화는 기존의 수동적으로 바라보던 노화의 개념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연할 수밖에 없는 노화를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지혜롭게 맞이하여 최적의 노화로 만드는, 잘 늙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형란, 2011). 전 생애 발달 관점에서 노화라는 것은 노년기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인생 주기에서 진행되어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본다면, 성공적인 노화는 예비노년층인 중년기에 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김연지 외, 2018).

한편, 최근 들어 빈둥지증후군이나 화병, 중년기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불안요인의 증가, 신체적 변화에 따른 갱년기 증상 발생 및 이로 인한 후유증 발생

등으로 인해 중년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후를 위한 사회적 대책으로서 교육적 준비와 함께 생산적 활동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변진숙, 2018). 실제로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중년기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40세~44세(63%), 45세~49세(70%), 50세~54세(66.6%), 55세~59세(57.4%) 모두 경제활동 참여율이 평균 60% 이상으로 이는 2000년과 비교해서도 확연히 늘어난 수치이다(통계청, 2022).

중년기 여성들은 일련의 직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키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 인식 과정을 통해 삶의 주체로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박수정, 2015). 오늘날 직업은 그저 경력의 일부가 아닌 삶이라는 말에서 보여지듯이 이는 직업과 그 정체성 인식이 단순히 여성의 직업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해가는 관문이 아닌, 중년여성이 보다 나은 성공적 노화를 추구해 나가는 여정임을 증명한다(백인자, 2016).

선행연구들의 경우 직업 가치관에 대한 인식 조사의 대상을 중년기 여성으로 좁혀 접근한 것은 현재 중년기 이후의 여성 인구가 증가되고 가족계획 등의 이유로 인해 인생주기에서 중년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있으며 직업현장에서 중년여성이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자기효능감, 자아통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이묘숙, 2012; 천경인·신윤희, 2020; 이혜정, 2021). 이들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성공적 노화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성공적인 노화는 자아존중감과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정연성, 2014; 김종선, 2016; 송영순, 2018).

이처럼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은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성공적인 노화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더라도, 성공적인 노화를 나타내는 삶의 지표는 문화적인 특수성도 지니게 된다. 문화를 환경적응의 메카니즘이라는 측면(유철인, 1986)에서 제주문화가 한국 문화 안에서 도서문화라는 독특한 하위문화로 볼 수 있다. 예로부터 육지부와 다른 제주여성의 특성이 주목 받아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이근영, 2020). 다른 지역의 여성에 비해 제주지역 여성의 강인성, 독립성, 근면성이 유달리 부각되는 것도 제주 사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문화적 독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창기,

1982, 1992, 1993; 유철인, 1986; 김진영, 1989; 신행철, 1991, 1994, 1997; 김혜숙, 1992; 조성윤, 1998; 김항원 외, 2000; 송성대, 2004).

본 연구에서는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고찰을 통해 중년기의 위기를 긍정적 경험으로 전환하고 성공적 노화의 향상을 위해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는 개인존중의 원리가 일상생활에 잘 녹아 있는 강인하고 부지런한 제주 중년여성의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이 성공적 노화와 관계의 관계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제주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만 있을 뿐, 미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중년여성에서의 직업가치관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년여성(40세~64세)을 대상으로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이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화와 함께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사회 늘어나는 성공적 노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성공적 노화 수준을 살펴보고,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 성공적 노화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은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중년여성

1) 중년여성의 개념

중년기라는 의미를 최초로 사용한 Jung(1956)은 40세 전후를 중년기로 보았고, Levinson(1978)은 40세~60세, Erikson(1968)은 40세~65세, Havighurst(1972)는 35세~60세를 중년기 시기로 보았다(한면화, 2021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 연령상의 기준에서는 40세~59세를 중년기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조옥희, 2004; 김영숙·최규련, 2006), 정옥분(2008)과 류승아 등(2011)은 40~65세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은아(2007)는 40세경부터 60세 이전까지(탈부모기)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35세에서 45세 사이에서 시작하여 55세~65세 사이를 중년기로 보고 있다(송명자, 2008).

김명희(1999)는 좀 더 구체적으로 중년기를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하였다. 첫째, 막내 자녀가 성장하는 시기부터 직업에서 은퇴하는 시기, 둘째, 대체로 40세~59세까지의 연령, 셋째, 가족생활 주기와 연령대를 종합하여 구분하였다. 중년기는 가족 생활주기의 관점에서 자녀의 양육 역할이 어느 정도 감소되고 노부모와 성장한 자녀의 중간에 위치하는 세대라 할 수 있으며, 개인적 발달의 관점에서는 신체적 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서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대인관계 및 사회 경제적 지위 등에 있어 절정기에 달한 시기라 할 수 있다(조희자, 2002).

Erikson(1963)은 이 시기에 겪는 심리 사회적, 위기를 일생동안 당면하게 되는 8단계의 발달 위기 중에서 중년기에 일어나는 ‘제 7의 심리사회적 위기’(seventy psychosocial crisis)에 처하게 된다고 하여 그것을 생산성 대 침체성(generativity vs self-stagnation)이라 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타인의 욕구를 예측할 수 있는 시

기라고 규정하였다(송영순, 2018 재인용).

국내의 경우 최선미(1992)는 중년기를 명확하게 분류하고 규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노년기로 가는 중간 역할을 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상준(2009)은 중년기를 ‘제2의 사춘기’라 정의하며, 불안함과 아울러 새로운 재구성을 평가하는 시기인 동시에 심리적 혼돈의 시기라고 보았다. 특히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김동배와 권중돈(2008)은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응, 부부간의 애정 재확립, 중년기 위기의 극복, 직업 활동에 대한 몰두와 여가 선용 등이 있다고 했고, 황윤주(2015)는 위기 극복과 자아발견을 통한 성숙과 자신과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인생 후반기에 대한 새로운 조망과 삶의 기회 활용에 따라 성숙한 황금기가 되기도 하며, 위기감과 상실감으로 무의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중년기는 노년기를 준비하며 좋은 건강과 인지적 능력, 자신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단계로 이는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다(김명자, 1989).

이처럼 중년기는 많은 부담감과 중년기 위기라는 실존적 위기를 경험하기 때문에, 중년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노년기의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인 삶의 질은 결정된다(인원교, 2012). 그래서 생의 주기에서 중년기를 부정적인 위기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시기로 보기보다는 개인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하는 전환의 시기로 인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김귀분·유재화·이은자, 2002).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현대의 중년기 여성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박미현, 2007; 이호길, 201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먼저, 중년기의 시기는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40세를 기준으로 하고, 신체적·사회환경적 역할 시기를 고려한 64세까지로 하였다. 또한 중년기에 대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활동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단계로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지를 결정하며 모색해가는 시기로 정의하였다.

2) 중년여성의 특성

여성들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여성들의 삶의 질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시기에 많은 생활사건, 스트레스, 노화 과정의 시작과 상황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문화적인 적응이 요구된다(박아청·이경혜, 1998). 이러한 중년여성의 특성을 조진희(2013 재인용)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류하였다.

첫째, 신체적 측면으로 Kaluger(1979)에 의하면 인체는 중년기에 접어들 때 기능면에서 거의 절정의 효능을 발휘하지만, 중년기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로 변화하여, 40세보다는 50세 혹은 55세에 가까울수록 대부분의 특징이 뚜렷해진다. Ryan(1979)이 언급한 중년기의 신체적 특징은 신진대사의 기능이 점점 감소되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체형이 변하며, 주름이 생기며,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털이 변화되는 것 등이다. 이 시기에 시각과 청각 기능이 약화되며, 생리적 작용도 약해진다. 특히 중년여성의 가장 큰 신체 변화인 폐경 현상을 들 수 있다. 폐경은 자녀를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양육하였느냐 또는 사회, 경제적으로 개인적 성취감을 충족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중년기에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환경변화에 긍정적으로 적응하지 못함에 따라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증상과 정신장애가 초래되기도 한다.

둘째, 정신적 측면으로 Kaluger(1979)에 의하면 현대에 많은 중년층은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 그리고 젊은이에게 집중된 시선 등에 의하여 그들의 위치에 의문을 가지며, 내적·외적으로 긴장감을 느낀다. Hulock(1978)은 중년기에서의 건강의 근원을 살펴보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늙음의 증거로부터 기인하는 신체적 긴장(somatic stress), 젊음, 정력, 성공에 높이 부여된 가치로부터 발생하는 문화적 긴장(cultural stress), 자녀교육과 구성원을 위한 신분 상징을 제공하는 재정적 부담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제적 긴장(economic stress), 자식의 분가, 결혼의 권태 혹은 죽음으로의 접근으로부터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psychological stress)등 이다.

셋째, 사회적 측면으로 Neugarten(1965)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중년기는 가족

안에서 그리고 직장과 공동 사회의 유대관계에서 세대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데, 가정생활에서 10대 자식들이 책임감 있고 잘 적응하는 성인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자식들이 분가할 때 남편에게 새로이 적응하여야 하고, 노부모에 대한 새로운 관련성을 발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김명자(1998)는 중년여성의 성인 자녀와 노부모 사이에서의 다중역할로 인한 어려움을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 양쪽에서 협공받는 세대(caught generation), 중간에 처한 여성(women in the middlegeneration)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중년여성의 특성과 함께 많은 중년 여성들은 50세를 넘기며 폐경, 노화, 자녀 결혼, 남편의 은퇴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가족 간의 관계 약화, 정체감 상실 등으로 오는 우울, 스트레스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특히 한국 여성의 경우 자녀교육과 제반 가정생활이나 노부모 시중 등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중년기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어, 중년기 여성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과중하며,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인다. 따라서 중년기의 위기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는 단순히 자기개발과 자기만족의 개인적 차원이 아닌 가족의 행복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김진이, 2016).

중년기에 있는 여성들은 자녀인 동시에 부모이기도 하다. 즉, “깁”세대,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우며 자녀 양육과 부모부양의 이중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다. 중년기에는 자녀 양육이 끝나고 자녀들이 출가를 시작하는 시기로 남녀 모두에게 불확실한 변화가 많아진다(김선화, 2012). 또한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의식과 제도가 잔존하고 있으며, 중년여성은 환경적으로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중간에 낀 세대로 자기 정체감이 분명치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상실하거나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 억압된 분노감 등의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겪기도 한다고 하였다(이우경, 2008; 정선아·김현주, 2017).

이처럼 삶의 혼란과 정체성의 상실,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고통당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며 ‘제2의 사춘기’라고 불리는 시기이다(김경순, 2009). 이는 불안함과 아울러 새로운 재구성을 평가하는 시기인 동시에 심리적 혼돈의 시기라고 보았다(이상춘, 2009).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은 위기 극복과 자아발견을 통한 성숙과 자신과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인생 후반기에 대한 새로운 조망과 삶의 기회 활용에 따라 성숙한 황금기가 되기도 하며, 위기감

과 상실감으로 무의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하였다(황윤주, 2015).

최근 들어서는 중년의 시기가 길어지면서 기존의 중년층과 다른 가치관 변화 및 젊은 마인드를 지닌 새로운 중년층으로 ‘신중년’ 세대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며, 이들을 대표하는 연령대와 성향 기준이 바뀌었으며, 그에 따른 수식어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백진숙, 2019).

신중년은 고령화를 목전에 둔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다른 연령대와 는 확연히 다른 그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이용호, 2015). 그러므로 신중년 세대를 연령 기준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용호(2015)의 연구에서도 신중년은 기존의 노년층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들은 정서적 영역에서 비교적 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영역에서도 종교단체나 친목단체,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영역에서도 사전 검진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신중년은 경제적 측면에도 기존의 노년층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신중년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그들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소비 유도계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노년층과 비교하여 신중년의 소득수준이 높다고는 하지만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통계청, 2019).

3) 제주여성의 특징

제주지역은 지리, 역사,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이질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육지와 분리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함께 제주 여성들을 ‘강인하고 부지런한’ 여성으로 인식한다(김영순, 2013).

제주 여성이 근면하고 적극적, 능동적인 기질을 형성하게 되어 강한 자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환경적, 역사적 영향이 크다. 제주처럼 공간적으로 고립된 섬 지역의 경우 자연환경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며 이로 인해 상당히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강기은, 2014). 섬이라는 환경조건은 남성은 언제 바다에 나가 죽

을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인 것이고, 남성들의 높은 사망률은 남편만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 여성들에게도 강한 노동경제력이 요구되었을 것이다(김영순, 2013). 즉, 제주도의 지형은 여성의 노동력을 많이 요구하는 밭농사 중심으로 되었다. 밭농사는 여성들의 노동 투입율이 높는데, 주요 노동은 김매기로 이 작업은 지구력과 섬세함을 갖춘 여성에게 적합한 노동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밭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다(강기은, 2014).

일제시대에도 해녀 항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4·3 당시에는 남성들을 대신해 여성들이 마을 어귀에 보초를 서는 여성군인이라 볼 수 있는 ‘女丁’이 되어 마을을 지켜내기도 했다(김영순, 2013; 강기은, 2014; 이근영, 2020). 이런 배경에는 4·3사건에서의 민간인 학살, 남성들의 일본 노동시장 진출, 한국전쟁에 징용 등의 역사적 요인들이 있다(송성대, 1996; 권귀숙, 1998; 김영순, 2013). 이러한 요인들은 결과적으로 남은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강인하고, 부지런한 제주 여성을 만들어냈다(김영순, 2013; 강기은, 2014; 이근영, 2020).

이런 역사적 요인들로 인하여 집안 생활을 책임질 딸은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이고, 강하게 키워야만 했을 것이다. 딸들은 바쁜 어머니를 대신하여 시집가기 전에도 동생들을 돌보고, 물 길어오기, 밭에 김매기 등 집안일은 물론이고 물질이나 고사리를 꺾어 돈도 벌어들이는 생산자의 위치에 있었다. 부모들은 딸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을 가게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 이처럼 제주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독립정신을 온몸으로 익혀 오면서 제주 여성들은 언제나 삶의 주체자가 되었다(강기은, 2014). 또한 제주 가게는 부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김혜숙, 2001). 부부간의 권력구조에 있어 서로의 결정권이 거의 대등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서, 부부관계의 저변에 남녀평등의식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 여성들의 어느 누구에게 예속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노동경제력은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독립성에 대한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이다(김혜숙, 1992).

무엇보다 제주지역 가족의 가장 큰 특징(김향원 외, 2000)은 장남이라도 결혼을 하면 분가(分家)시키는 분가주의와 노부모는 노동을 할 수 있는 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로 독립생활을 한다. 제주 여성 노인의 경우 연로하더라도 거동이 가능한 한 주거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

에서도 독립하려한다(김혜숙, 1999). 제주 여성이 노후 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일을 하거나 재산을 준비해 자립하려는 경향이 전국의 일반인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민호, 1992). 이는 제주 여성이 전통적인 제주 특유의 가족 형태와 마을공동체적 삶 속에서 검소하고 근면하게 자립적이고 강인하게 성장해 온 세대이고, 산업화라는 새로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자신들이 경제적 문제를 타인에게 의존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강기은, 2014).

이재경(2015)은 제주여성에 대해 근대화 과정에서 마을 및 지역공동체의 재건과 발전의 주체로서 제주 여성들은 환경의 변화와 상호작용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면서 여성의 문화를 만들었으며 무력한 대상으로만 존재하지 않았고, 다양한 도전과 협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전망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생활하려는 성향과 집단중심보다는 개인존중의 원리가 일상생활에 잘 녹아 있는 강인하고 부지런하여 자기 정체성과 자주성, 자립성이 강한 제주 여성의 직업 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이 향후 노년기에 들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떤 면이 변화되고 강한 특징을 보여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직업가치관

1) 직업가치관의 개념

직업 가치관은 개인이 어떠한 일 또는 직업에 대하여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선택의 기회를 주어졌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선호하는가 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학자들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특정 직업이 아닌 일반화된 개념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강맹현, 1994).

일에 대한 의미는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일에 대한 가치관 또

한 시대와 공간에 따라 변한다(허순혜, 2007). 직업 가치라 함은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치관이다(김태희, 2007). 이재창(1987)은 직업관을 개인이나 집단행동의 기초 혹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사건을 관찰하고 경험한 것에 의미와 의의를 부여하는, 사회적으로 학습된 구조이며 행동에 대한 관념이라고 정의하였고, 김충기(1989)는 직업관이란 직업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 또는 시각이라고 정의하였으며, Zytowski(1969)는 직업가치관은 진로결정시 고려하게 되는 직업, 즉 일에 대한 가치관으로서 개인의 정의적 지향과 동일한 정도의 만족을 주는 외부 대상의 계급 사이의 중계역할을 하는 일련의 개념이라고 하였다(황애연, 2015 재인용).

Kalleberg(1997)는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관하여 가지는 생각, 즉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견해이며 이러한 직업 가치관은 개인이 추구하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문호영, 2007 재인용). 김병석(1997)은 직업 가치관이란 직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행동기준으로 개인이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원리나 믿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직업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가변성을 지닌 직업에 대하여 느끼는 가치관 내지 사고로서, 현실적 여건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이주영, 2010).

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들을 종합하여 직업 가치를 직업선택에 있어 어떠한 보상을 중요시하는 하는가로 정의하고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일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 물질적인 것을 선호하는 정도를 물질적 보수 추구, 꾸준한 일자리와 고용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정도를 안정성 추구, 자율성, 일과 개인적인 생활, 여가의 적절한 분배를 선호하는 정도를 생활의 균형 추구,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는지를 중시하는 정도를 능력 발휘추구로 정의하고, 그 중 어떤 성향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겠다.

2) 직업가치관의 선행연구 고찰

Astin(1984)는 여성이 어떠한 직업가치를 갖는가는 여성들의 행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나 여성들이 어떠한 동기와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예측하고 보여 줄 수 있다고 하였다(송영순, 2018, 재인용).

Goldthorpe(1968)는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직업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조건이나 보상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안병철(2010)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단축된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에 보내는 시간, 생애주기의 변화, 생활수준 유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여성의 자아실현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직업가치관은 학생들의 전공 선택, 직업선택 및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이옥, 1993; 김정숙, 2006; 김진윤, 2007; 김현주, 2007; 박은하, 2012).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나 진로준비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직업가치관에 대한 연구결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윤환, 2000; 조지혜, 2007; 강원덕, 2009; 김미숙 외, 2010; 문소령, 2010; 정주영, 2013; 이승희, 2019, 재인용).

직업가치관에 어떤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를 살펴보면, 김봉환(2000)은 가치척도를 이용한 연구에서 성별, 학년, 학교,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교육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직업가치관과 성별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외적보상을 추구한다는 연구결과(이옥, 1993)도 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일수록 직업으로부터 높은 소득과 지위 등 외적보상을 더 높게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양한주, 정철영, 1998)도 있다.

백영균(1980)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촌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직업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직업의 안정성과 장래성을 중시하고, 인문계와 비진학 학생은 경제적 요인을 중시하고, 실업계는 자아실현성, 노동조건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밝혔다. 또한 직업을 결정한 학생은 경제적 요인을 중요시 여기고 결정하지 않은 학생은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성, 노동조건을 중요시 여긴다고 분석하였다. 안강현(1998)은 전문대생 634명을 대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보수, 성취, 능력, 지위, 기여, 안정의 순이었으며, 내재적 직업가치관은 연령, 학년 등에 차이가 있으며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출신지역, 부모의 학력과 직업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가치관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자녀의 성별, 부모의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지며 직업가치관은 가족, 학교, 직업 등 다양한 상호작용 및 동일시를 통해서 발달하고, 특히 부모는 자녀의 동일시와 가치를 내재화하는 원형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황애연, 2015).

4.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에 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동시에 자신이 한계를 인식하며 성장을 예상하는 것이라 하였다(Rosenberg, 1965; 송영순, 2018 재인용).

Harter(1985)는 자아존중감은 나 자신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정서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개념화되기도 하였다. 김영애(2000)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자아에 대한 의식적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인들과 관련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삶을 기대할 수 있는 변화 가능한 자기감정으로 정의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여부 등 자신의 태도에서 보여지는 가치성의 개인적 평가 또는 판단이며, 그로 인해 개인의 행동과 생활 적응 등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 적용하는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Coopersmith, 1967).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발달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하며 행복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중요하다라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도 매개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김현정·손정락, 2006).

최해림(1999)은 자아존중감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변인으로 정신 건강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 우울, 부정적 사고, 자기표현, 학업 성취, 성적, 신체상진로 성숙도 등 많은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이라 했다.

대체로 자아존중감이란 영적 안녕이나 행복감과 정적 관계를 가지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 및 타인수용이 높다. 자신에게 있는 단점과 열등감을 받아들이는데 개방적이며 자신의 장점을 받아들이는데도 적극적이다.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데 억압과 부정과 같은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며, 그것만으로도 많은 심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박상규, 2013).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내리는 평가이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거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중요도이다. 두 번째는 자신이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성취의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의 능력이다. 셋째는 도덕과 규범 같은 사회적인 법도를 지키는 미덕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타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미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영향이다(Coopertsmith, 1967).

Rosenberg(1965)는 사회적 정체성, 개인적 기질, 신체적 특성을 자아존중감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박미현, 2007 재인용). 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한 사람을 자아존중감 사회적 정체성에는 사회적 지위(연령, 성, 가족에서의 위치, 직업 등), 회원집단(마라톤선수, 우표수집가등), 꼬리표(중독자, 전과자등), 과거의 지위(대학학위, 전쟁 베테랑 등), 중요한 특성에 바탕을 둔 사회적 형태(플레이보이, 학자, 운동선수 등) 등이 포함된다. 개인적 기질은 사람들의 특성, 능력, 좋아하는 반응 경향에 한 자아 인간과 관련된다. 신체적 특성은 자기의 신장, 체중, 체형, 매력, 근력 등에 대하여 갖고있는 평가적 묘사에 관련된다.

Maslow(1970)는 인간의 5가지 욕구중 자아존중감에 대해 자신이 관심, 인정, 그리고 존경받을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는 감정으로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양점도 외, 2008; 진연주, 2010 재인용).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환경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 자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로서 인생의 초기에 형성되어 비교적 변하지 않지만, 중년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역할 상실 등의 저하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이현심·남희수, 2010). 자아존중감이 높은 중년은 그렇지 않은 중년과 비교해 노년기에 역할 상실과 변화를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따

라서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켜 생애 발달 과정에서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갖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정순돌, 2004). 특히 중년기에는 자아존중감이 유지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적응력과 상황에 대한 재해석 향상을 위한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최성재·장인협, 2010).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실제 그들의 나이보다 젊게 느끼고 삶에 만족한다고 하였고(서경석 외, 2012), 김종임 등(2008)은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결국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유추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견해를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사회적 규범에 충실하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허용적이며 자기 개방적이고 긍정적이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는 타인과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억압감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의존감이 높아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자아존중감은 현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정도라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한유화, 정진경이 개발한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가 서양 위주의 문화적 가치로 이루어져 문화적인 관점에서 개념의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집단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동양의 자기 평가 또는 자아존중감을 포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문화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해석한다면 상대적으로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들의 자아존중감이 낮게 측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주장되어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주의적 문화권과 집단주의적 문화권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다. 그렇기에 제주지역의 집단주의적 문화권에서 중년여성 개인의 특성인 개인주의 문화권을 연구하기에는 더욱 알맞은 척도라고 생각하여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2) 자아존중감의 선행연구 고찰

자아존중감은 최근 성공적 노화의 정(+)적 상관이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정순

둘, 2007; 김재중, 2008; 유채옥, 2009; 한중식, 2009; 김종진, 2011; 김신정, 2013; 이향란, 2013),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자기효능감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박종한, 2006; 서은주, 2009; 윤영애, 2009; 이은석·안찬우, 2010; 이정우, 2010; 이묘숙, 2012; 조진희, 2013). 자신이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게 되고, 가치를 느끼며 유능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노후를 만족스럽게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오미나, 2003). 자아존중감은 인간에게 힘의 원천이며 삶의 긍정적인 적응에 필요한 잠재력을 강화하여 주고, 인간의 성장과 행복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권양순, 2009).

Krause and Benjamin(2000)의 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에는 소외감, 질병 부담, 통제력 상실의 삶으로 나타나서 자아존중감이 삶을 조절하고 성공적 삶의 구성요소인 건강이 유지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송영순, 2018 재인용). 장미희와 원정숙(2009)은 자아존중감의 저하는 우울하게 하며 위험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결국 삶의 질에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혜영 등(2005)은 자아존중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높을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여성의 자아존중감에 매개 효과로 분석했던 김동주 외(2014)에서의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일상생활 만족도와 경제활동 상태 간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한미정(2003)은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함과 아울러 진취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성공적 노화와 관계되는 생활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보고되었다(홍성희·이경희, 1998; 안수민, 2004; 유송자, 2004; 김형남, 2007; 마상범, 2014).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 관계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중년기 여성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오창섭 외, 2009). 즉,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행복과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수이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중년여성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행동함으로써 원만한 사회생활을 함과 동시에 진취적이고도 활력있는 생활태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이금주·임선영·김수진, 2015). 윤양희(2010)는 자아존중감은 중년기 여성 위기에서 중심적 변수가 되었다고 한다.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으로 성공적인 삶을 유지시켜 주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최영애, 2003; 진연주, 2010).

중년기 여성에 자아존중감이 노후 삶의 질에 결정짓게 되는 요인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중년기 여성에게 가치 형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사회생활의 적응에 있어서 최우선시 되는 요소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많았지만,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중년여성의 걸어진 노후를 건강하게 맞이하고 성공적 노화 적응을 위해 직업가치관에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독립변수로서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3. 성공적 노화

1) 성공적 노화의 개념

성공(success)은 증가, 획득, 승리, 발전, 보상과 같은 긍정적인 개념이지만 노화(aging)는 상실, 감소, 쇠퇴,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개념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두 개념을 합한 성공적 노화는 모순적이라 생각되기도 한다(송혜자, 2009; 강혜원, 2012; 송영순, 2018).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노화를 쇠퇴의 개념으로 보았으나 '성공적'이라는 형용사가 붙으면서 부정적인 관념이 아닌, 긍정적으로 보며 발달이나 성숙의 개념으로 보았다(강신욱, 2009).

성공적인 노화는 기존의 수동적으로 바라보던 노화의 개념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나이 들어가며 당연한 결과인 노화를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지혜롭게 맞이하여 최적의 노화로 만드는, 잘 늙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형란, 2011). 노화라는 것을

전 생애 발달관점에서 노년기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인생 주기에서 진행되어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본다면, 성공적인 노화는 예비노년층인 중년기에 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김연지 외, 2018).

현대 노년학에서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6년 미국 노년 사회학회의 주제로 성공적인 노화가 소개된 이후이며, 이후 노인에 관한 연구의 방향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양성을 수용하려는 새로운 노년학이 주목을 받아왔다(홍현방, 2003).

Featherman, Smith and Peterson(1990)은 성공적인 노화를 적응개념으로 맞추어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보고, 한 사회의 노인에게 문화적으로 인식되는 정신과 신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조건을 반영하는 사회·심리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Baltes and Carstensen(1996)은 신체기능의 유지와 건강으로부터 생성감, 자아통합, 자아실현, 사회적 연결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성공적인 노화라고 정의하였다. 반면 Rowe and Kahn(1997)은 신체적 측면을 강조한 이전의 성공적 노화의 개념 정의가 사회 심리적 측면의 요인을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함에 따라 성공적 노화를 역할 지속의 사회적 요인을 포함해 질병의 장애 요인을 감소시키는 대신 삶에 능동적인 활동과 육체적 정서적 기능을 유지하며 생산적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재 개념화하였다.

2000년대 이후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는 신 노년학적 차원에서 기존의 성공적 노화 요소들을 초월하는 다차원적 개념의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노준희, 2014). 즉, 노인 자신의 노화를 노인들 스스로 자신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인지적, 활동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를 개념화하고 각 요인과 더불어 예측 인자를 검증하고 있다.

Torres(2002)는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육체적 건강, 개인의 특성, 사회적 배경의 3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신체적 건강을 바탕으로 성격이 일관되고 원만하며, 노인들이 사회적 환경에 잘 적응하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Peter(2001)의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노화는 단순히 건강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감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의해

평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성공적 노화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이며, 노년기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그들의 축적된 지혜와 지식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등이 성공한 노인으로 보이는지의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했다.

최근 Frick and phelan(2009)은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이 신체가 건강하고 질병이 없는 상태를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은 사회 심리적 요인이 보상 작용을 하여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으므로 심리적인 요소, 생체 의학적 요소,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소가 통합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Cosco et al.(2014)는 성공적 노화를 정신적, 심리 사회적, 영적 건강, 신체적 건강을 모두 내포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노년기의 삶 동안 다양한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삶의 만족을 느끼며,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부터 성공적 노화라는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선행연구 방향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가족적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이신영, 2006).

조혜경(2002)은 심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 등을 가지는 다차원적 구성체로 보고하면서 전문 영역에서의 수행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적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기능으로 정의하면서, 성공적인 노화란 부정적 한계를 주관적 의지로 극복하고 새로운 질적 변화로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홍현방과 최혜경(2003)은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정의를 위한 문헌연구에서 성공적인 노화란 과거와 현재를 수용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심리적인 발달과정이며, 정신이나 신체상의 질병이 없이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 논문들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를 분석한 안정신 외(2011)의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친숙한 관계 및 자녀의 성공, 평범한 삶 등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외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노년기 준비과정을 필수적 요인으로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은퇴와 퇴직 후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퇴직예정

자의 퇴직 준비역량의 요인인 퇴직 준비 교육 등이 성공적 노화에 기대되는 긍정심리자본에 유의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연구 등이 그러하다(이상주, 2020).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성공적인 노화’란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잃지 않고 정신적으로 성숙해 가는 심리적인 발달과정이며, 과거와 현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까운 장래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동시에 정신이나 신체상의 질병이 없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 노화는 여태까지 남자, 또는 노인에 대한 연구만 있었고 성공된 여성들에 대한 노화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조진희, 2013), 평범한 여성에 대한 이 사회에서 대부분을 차지한 일반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화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중년여성이 중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 등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중년여성의 직업 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성공적 노화 모델의 내실화에 기여 및 고령화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임을 시사한다.

2)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다양한 성공적 노화의 구성 개념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신체적 건강,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3가지 측면에서 구분해 볼 수 있다(김동배, 2007). 3가지 측면이 별개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는데, 성공적 노화를 구성하는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각 변수들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입증하는데 바탕이 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측면이다. 인간의 가장 최우선의 기본적인 욕구중의 하나가 Maslow(1970)의 1, 2단계에 속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를 반영하는 건강한 삶이다. 이와 관련하여 Schultz and Heckhausen(1996)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지표를 신체적 건강이라고 보았으며, Rowe and Kahn(1998)도 질병은 피해 가는 것을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보았다. Ryff(1989)는 신체 건강

을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인식에 관련이 있다고 했다.

국내 연구에서도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건강은 가장 중요한 성공적 노화의 영향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태현 외, 1998; 박은숙 외, 1998). 이처럼 건강은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김동배, 2008). 건강할수록 능력 있는 신체활동이 되고, 신체활동의 능력은 성공적 노화를 설명해 주는 강력한 변수가 되고 있다(Baltes and Baltes, 1990; Schultz and Heckhausen 1996; 송영순, 2018 재인용).

둘째, 심리·정서적 측면이다.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는 자기효능감, 독립성, 수용, 긍정적 사고, 적응성, 적극적 사고, 진취적 사고, 종교, 감사성향, 임종 등의 요인들이 포함된다(조해경, 2002). 자아존중감은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데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학문적 수행이 우수하고, 심리적으로 적응을 더 잘하고, 실패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적절하게 분노를 표현하며,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외적 원인에 귀인하며,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이후에 수행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다(이훈구, 1997). 이 외에도 성공적 노화를 삶의 과정에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자원들의 발달이라고 하며, 수용성, 적극성, 개방성이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았다(Featherman, 1992).

셋째, 사회적 측면이다. 성공적 노화에 관한 사회적 측면의 구성요소로는 주로 사회적 지지 및 관계망, 경제적 상태 등이 언급되고 있다(김동배, 2007). 사회적 지지는 필요할 때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타인들이 있다는 일종의 신념에서 형성되며, 사회적 관계망은 심리적 안녕을 북돋우고 삶의 스트레스에 적응하도록 촉진하는 사회적 지지의 근원으로 간주된다(Larson, 1978; Rook, 1997; 송영순, 2018 재인용). 또한 경제적 요인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수입은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게 됨으로써 자율성이 향상됨으로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아진다(Campbell, 1981). 경제 활동은 안정된 소득의 확보, 사회발전에의 기여감과 자기 유용감의 확인, 건강 유지 효과, 사회적 소외와 고독감의 억제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권중돈·조주연, 2000).

3) 성공적 노화의 선행연구 고찰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생물학적 기준들에 의해 성공적인 노화를 연구하는 것과 둘째는 심리 사회적 분야에서 성공적인 노화의 적응을 탐색하는 연구들로 분류할 수 있다(안정신·강인·김운정, 2009). 또한, 최근 성공적인 노화에 관한 연구들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기도 한다(Tate, Lah & Cuddy, 2003).

1984년부터 1990년까지 356명의 65~95세로 구성된 남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공적 노화 관련 변인을 조사한 미국 Alameda 카운티 연구에서는 만성질병 네 가지(관절염, 당뇨,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와 우울이 성공적 노화의 결과로 감소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우울과 만성질환이 없는 것을 성공적 노화로 보았다. 서명환(2011)은 건강상태, 결혼상태, 종교 유무, 교육수준, 경제력, 요인들에 따라 성공적 노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참여수준이 복지를 그동안에 별개의 차원으로 근접한 정책별 사업추진에 급급하여서 장기 계획적 정책으로 접근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경제적 안정은 성공적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Chou & Chi, 2002; Crosnoe & Elder, 2002;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9; 성혜영·유정현, 2002; 조혜경, 2002) 또한, 친구의 지지가 많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창섭·정원길, 2009).

생산적인 활동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생산적인 활동의 영역 중 가족 활동을 제외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성공적인 노화와 의미 있는 정적인 상관성을 나타내었다(홍혜영, 2005). 또한, 생산적 활동이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성공적인 삶은 개인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 긍정적인 사고의식과 자아통합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조운주, 2006). 생산적 활동과 성공적 노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참여 활동, 사회참여 만족도, 사회관계 활동, 상호 작용 만족도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박금분, 2008).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성공적 노화의 신체적, 사회적 요인이 될

수 있는 가구 특성 요인 인구사회학 요인과 함께 자아존중감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노인 대상이 아닌,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중년기부터 인식된 내면적 요인이 그대로 노년기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성공적 노화를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노년기 이전 세대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제주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40세에서 64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대상은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22년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전체 설문지는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350부와 온라인 50부 총 400부를 배포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구글 드라이브의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바일 및 이메일로 설문조사 하였다.

총 400부 중 오프라인 설문 330부, 온라인 설문 28부 총 358부를 회수되었다. 이중 연구대상 연령이 초과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불성실한 설문 14부를 제외한 총 344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2. 연구가설 및 모형

1)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직업가치관, 자아존중감, 성공적 노화 수준을 살펴보고,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직업가치관, 자아존중감, 성공적 노화수준은 어떠한가?

연구가설 1-1.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직업가치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3.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성공적 노화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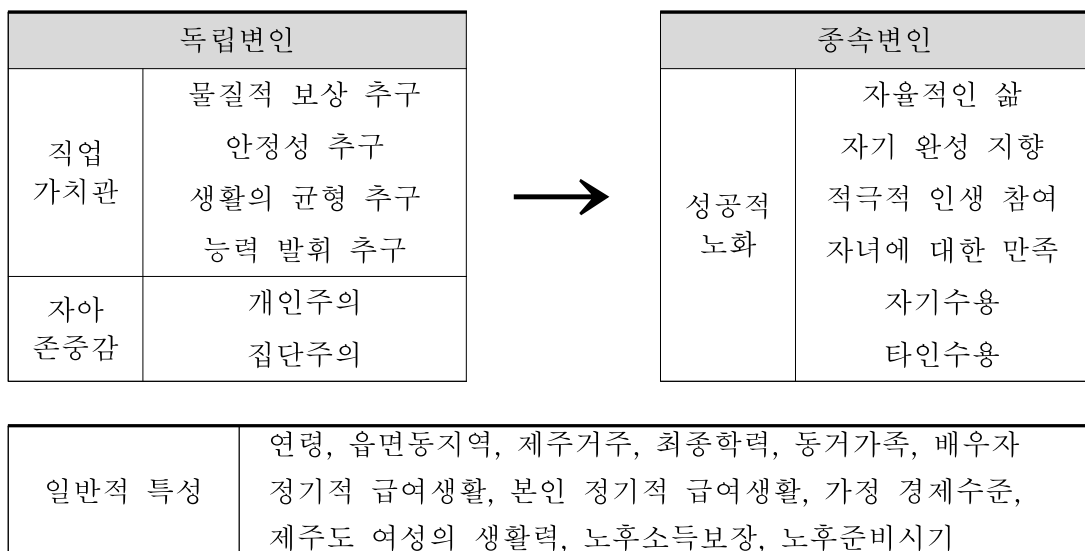
연구문제 2.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은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1.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직업가치관은 성공적 노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은 성공적 노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 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기존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가치관, 성공적 노화, 자아존중감 등 총 8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년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는 연령, 읍면동 거주지역, 제주지역에서 현재 거주, 최종학력, 동거가족, 배우자, 본인의 정기적 급여생활, 주관적인 경제 상태, 제주도 여성의 생활력, 노후소득보장, 노후생활 준비 시기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명목척도로 구성된 문항은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직업가치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업가치관 검사는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심리조사를 바탕으로 이윤정(2012)이 32문항으로 축소하여 제작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1-1> 직업가치관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선행연구 신뢰도	본 연구 신뢰도
물질적보상 추구	6	1, 2, 3, 4, 5, 6	.89	.89
안정성 추구	7	7, 8, 9, 10, 11, 12, 13	.89	.87
생활의 균형 추구	9	14, 15, 16, 17, 18, 19, 20, 21, 22	.88	.82
능력발휘 추구	10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89	.94
전체	32		.93	.93

이윤정(2012)은 직업가치관의 하위요인을 ‘물질보상 추구’(7문항), ‘안정성 추구’(6문항), ‘생활의 균형추구’(9문항), ‘능력발휘추구’(10문항)으로 구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윤정(2012)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신뢰도는 .93, 물질적보상 추구 .89, 안정성 추구 .89, 생활의 균형 추구 .88, 능력발휘 추구 .89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3로 나타났다. 물질적 보상 추구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89, 안정성 추구의 신뢰도는 .87, 생활의 균형추구의 신뢰도는 .82, 능력발휘 추구의 신뢰도는 .91로 나타났으며, 전체 직업가치관 척도의 신뢰도는 .93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측정도구로는 한유화와 정진경(2007)이 개발한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1-2> 자아존중감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선행연구 신뢰도	본 연구 신뢰도
개인주의	6	1, 2, 3, 4, 5, 6	.78	.87
집단주의	6	7, 8, 9, 10, 11, 12	.77	.87
전체	12			.91

자아존중감 척도는 서구에서 많이 연구되고 한국에도 번안되어 사용한 자료들이 많지만, 개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자아존중감을 결정하기 때문에 서양의 문항을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경우 서양의 개인적인 문화권을 위주로 문항이 작성되어 있어서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권과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를 모두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동양인들의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개인 자아존중감과 집단 자아존중감의 요소를 반영한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인 자아존중감의 경우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한유화와 정진경(200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개인주의 .78, 집단주의 .7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 자아존중감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7로 집단주의 자아존중감은 .87로 같게 나타났다. 척도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3) 성공적 노화

본 연구에서 성공적인 노화의 종속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김동배(2008)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1-3> 성공적 노화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선행연구 신뢰도	본 연구 신뢰도
자율적인 삶	9	16, 17, 19, 22, 24, 26, 27, 30, 31	.84	.80
자기완성 지향	6	5, 6, 9, 10, 12, 21	.74	.80
적극적 인생 참여	5	18, 23, 25, 28, 29	.74	.82
자녀에 대한 만족	5	11, 13, 14, 15, 20	.86	.83
자기수용	3	3, 4, 7	.65	.74
타인수용	3	1, 2, 8	.65	.63
전체	31		.91	.93

김동배(2008)의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는 6가지 요인으로 되어 있다. 하위 항목 구성은 자율적 삶 9개 문항, 자기완성 지향이 6개 문항, 적극적 인생참

여가 5개 문항, 자녀에 대한 만족 5개 문항, 자기 수용이 3개 문항, 타인수용 3개 문항의 총 3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까지 5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성공적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김동배(200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자율적인 삶 .84, 자기완성 지향 .74, 적극적 인생참여 .74, 자녀에 대한 만족 .86, 자기수용 .65, 타인수용 .65였으며, 전체 척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도의 경우, 자율적인 삶 .80, 자기완성 지향 .80, 적극적 인생참여 .82, 자녀에 대한 만족 .83, 자기수용 .74, 타인수용 .6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3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처리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변수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자아존중감, 성공적 노화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가치관, 자아존중감, 성공적 노화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독립변수인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인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중년여성의 직업 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제주지역 기혼 중년여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령은 40~49세, 50~59세, 60~64세로 3세 분류로 정의하였으며, 다중응답으로 설문한 문항인 동거가족구성원 문항에 대한 결과는 동거가족 있음, 동거가족 없음 2집단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1>에 제시하였다. 연령으로는 50~59세가 198명(5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49세가 95명(27.6%), 60~64세가 51명(14.8%)순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거주지역은 서귀포시 동지역이 147명(4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시 동지역이 92명(26.7%),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76명(22.1%), 제주시 읍면지역이 29명(8.4%)순으로 나타났다. 제주거주 제주지역 여성은 265명(77%),이고 제주거주 타지역 여성은 78명(22.7%)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2~4년제 포함)이 206명(59.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93명(27%), 대학원(재학) 이상이 45명(13.1%)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이 있는 여성은 326명(94.8%)이며, 동거가족이 없는 여성은 18명(5.2%)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현재 같이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중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분 중에서 배우

자의 정기적 급여생활을 하고 있는가 묻는 질문에는 해당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6명(27.9%),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183명(53.2%),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65명(18.9%)이었다.

본인이 현재 정기적인 급여생활을 하고 있는가 묻는 질문에는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284명(82.6%),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59명(17.2%)이었다. 가정의 경제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보통은 221명(64.2%), 중상층은 72명(20.9%)였으며, 중하층은 32명(9.3%), 상층은 10명(2.9%), 하층은 9명(2.6%)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여성의 생활력을 묻는 질문에는 다소 강하다 191명(55.5%), 매우 강하다 94명(27.3%)로 강하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53명(15.4%), 매우약하다 1명(0.3%), 다소 약하다 5명(1.5%)순으로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묻는 질문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147명(42.7%), 부동산 등 재테크 76명(22.1%), 저축이나 적금 69명(20.1%), 사적보험(민간 연금성보험 또는 저축보험) 36명(10.5%), 주식 또는 펀드 10명(2.9%), 기타 6명(1.7%)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40대부터가 126명(3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부터가 99명(28.8%), 50대이후부터가 75명(21.8%), 20대부터가 42명(12.2%)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44)			
항목	구분	빈도(N)	백분율(%)
연령	40~49	95	27.6
	50~59	198	57.6
	60~64	51	14.8
읍면동지역	제주시동지역	92	26.7
	제주시읍면지역	29	8.4
	서귀포시동지역	147	42.7
	서귀포시읍면지역	76	22.1
제주거주	제주지역 여성	265	77
	타지역 여성	78	22.7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93	27
	대학교졸업(2-4년제포함)	206	59.9
	대학원(재학)이상	45	13.1
동거가족	있음	326	94.8
	없음	18	5.2
배우자 정기적 급여생활	해당없음(배우자없음)	96	27.9
	있음	183	53.2
	없음	65	18.9
본인 정기적 급여생활	있음	284	82.6
	없음	59	17.2
가정경제수준	하층	9	2.6
	중하층	32	9.3
	보통	221	64.2
	중상층	72	20.9
	상층	10	2.9
제주도여성의 생활력	매우 약하다	1	0.3
	다소 약하다	5	1.5
	보통이다	53	15.4
	다소 강하다	191	55.5
	매우 강하다	94	27.3
노후소득보장	공적연금	147	42.7
	사적연금	36	10.5
	저축이나 적금	69	20.1
	부동산 등 재테크	76	22.1
	주식 또는 펀드	10	2.9
	기타	6	1.7
노후준비시기	20대부터	42	12.2
	30대부터	99	28.8
	40대부터	126	36.6
	50대이후부터	75	21.8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같다.

먼저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직업가치관’에 대해 조사대상 전체 3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소값은 1.88, 최대값은 5.00, 평균은 3.98이었다.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직업가치관’의 하위요인인 ‘물질적 보상 추구’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최소값은 1.17, 최대값은 5.00, 평균은 3.84, ‘안정성 추구’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최소값은 1.57, 최대값은 5.00, 평균은 4.20, ‘생활의 균형 추구’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최소값은 1.56, 최대값은 5.00, 평균은 4.13, ‘능력 발휘 추구’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최소값은 1.90, 최대값은 5.00, 평균은 3.78이었다.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화’의 하위요인인 ‘자율적 삶’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최소값은 2.44, 최대값은 5.00, 평균은 3.98, ‘자기완성 지향’의 기술통계량은 최소값은 1.50, 최대값은 5.00, 평균은 3.61, ‘적극적 인생참여’의 기술통계량은 최소값은 1.0, 최대값은 5.00, 평균은 3.70, ‘자녀에 대한 만족’의 기술통계량은 최소값은 2.60, 최대값은 5.00, 평균은 4.05, ‘자기 수용’의 기술통계량은 최소값은 1.67, 최대값은 5.00, 평균은 3.72 그리고 ‘타인 수용’의 기술통계량은 최소값은 1.67, 최대값은 5.00, 평균은 3.55로 조사되었다.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결과는 최소값 2.17, 최대값 5.00, 평균이 3.77이었고 하위요인인 ‘개인주의’의 기술통계량은 최소값은 1.67, 최대값은 5.00, 평균은 3.59, ‘집단주의’의 기술통계량은 최소값은 2.50, 최대값은 5.00, 평균은 3.96으로 조사되었다.

<표 2-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N=344)

변수	하위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직업 가치관	물질적 보상 추구	1.17	5.00	3.84	.72
	안정성 추구	1.57	5.00	4.20	.57
	생활의 균형 추구	1.56	5.00	4.13	.49
	능력발휘 추구	1.90	5.00	3.78	.65
	전체	1.88	5.00	3.98	.48
자아 존중감	개인주의	1.67	5.00	3.59	.63
	집단주의	2.50	5.00	3.96	.51
	전체	2.17	5.00	3.77	.53
성공적 노화	자율적 삶	2.44	5.00	3.98	.46
	자기완성 지향	1.50	5.00	3.61	.63
	적극적 인생참여	1.00	5.00	3.70	.67
	자녀에 대한 만족	2.60	5.00	4.05	.54
	자기수용	1.67	5.00	3.72	.65
	타인수용	1.67	5.00	3.55	.62
	전체	2.68	5.00	3.81	.4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집단 간 차이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과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일원 배치 분산분석의 사후 분석을 위해 Scheffe 사후 검정을 사용하였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차이 분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질적 보상 추구 차이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질적 보상 추구 집단 간 차이 결과는 <표 3-1>과 같다. 먼저, 연령에 따른 물질적 보상 추구 차이를 살펴보면, 40~49세 3.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50~59세 3.83점, 60~64세 3.6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읍면동 지역에 따른 물질적 보상 추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251$, $p<.05$). 동지역이 3.90점으로 읍면지역 3.7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거주에 따른 물질적 보상 추구 차이를 살펴보면, 제주에 거주하는 제주지역 여성이 3.86점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타지역 여성 3.77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물질적 보상 추구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2~4년제포함)이 3.8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재학)이상이 3.86점, 고등학교 졸업이하 3.75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에 따른 물질적 보상 추구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3.85점으로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8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년여성 본인이 정기적 급여생활에 따른 물질적 보상 추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246$, $p<.05$).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3.88점으로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6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시기에 따른 물질적 보상 추구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부터 4.0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후부터 3.92점, 30대부터와 40대부터 평균점수가 3.79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질적 보상 추구 차이 분석

(N=344)

항목	구분	N	평균 (M)	표준 편차 (SD)	t/F	p	사후 검정
연령	40~49	95	3.94	.70	1.870	.156	
	50~59	198	3.83	.71			
	60~64	51	3.69	.78			
읍면동 지역	동지역	239	3.90	.69	2.251*	.025	
	읍면지역	105	3.71	.77			
제주 거주	제주지역여성	265	3.86	.71	.871	.384	
	타지역여성	78	3.77	.77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93	3.75	.71	.960	.384	
	대학교졸업 (2~4년제포함)	206	3.87	.72			
	대학원(재학)이상	45	3.86	.75			
배우자 정기적 급여생활	유	183	3.85	.70	.444	.658	
	무	65	3.81	.65			
본인 정기적 급여생활	유	284	3.88	.71	2.246*	.025	
	무	59	3.65	.77			
노후 준비 시기	20대부터	42	4.01	.76	1.498	.215	
	30대부터	99	3.79	.69			
	40대부터	126	3.79	.72			
	50대이후부터	75	3.92	.73			

*p<.05, **p<.01, ***p<.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정성 추구 차이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정성 추구 집단 간 차이 결과는 <표 3-2>와 같다.

먼저, 연령에 따른 안정성 추구 차이를 살펴보면, 40~49세 4.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50~59세 4.22점, 60~64세 4.06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읍면동 지역에 따른 안정성 추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동지역이 4.23점으로 읍면지역 4.1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주 거주에 따른 안정성 추구 차이를 살펴보면, 제주에 거주하는 제주지역 여성과 제주에 거주하는 타지역 여성이 4.20점으로 같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안정성 추구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2~4년제포함)이 4.2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재학)이상이 4.19점, 고등학교 졸업 이하 4.16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에 따른 안정성 추구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4.23점으로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4.1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년여성 본인이 정기적 급여생활에 따른 안정성 추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898, p<.01$).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4.24점으로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4.00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시기에 따른 안정성 추구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부터 4.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부터 4.23점, 50대이후부터 4.21점, 40대부터 4.12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정성 추구 차이 분석

(N=344)

항목	구분	N	평균 (M)	표준 편차 (SD)	t/F	p	사후 검정
연령	40~49	95	4.23	.51	1.715	.182	
	50~59	198	4.22	.59			
	60~64	51	4.06	.59			
읍면동 지역	동지역	239	4.24	.55	1.879	.061	
	읍면지역	105	4.11	.62			
제주 거주	제주지역여성	265	4.20	.58	.051	.960	
	타지역여성	78	4.20	.54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93	4.16	.64	.254	.775	
	대학교졸업 (2~4년제포함)	206	4.21	.53			
	대학원(재학)이상	45	4.19	.61			
배우자 정기적 급여생활	유	183	4.23	.57	1.327	.186	
	무	65	4.12	.53			
본인 정기적 급여생활	유	284	4.24	.56	2.898**	.004	
	무	59	4.00	.59			
노후 준비 시기	20대부터	42	4.35	.52	1.914	.127	
	30대부터	99	4.23	.51			
	40대부터	126	4.12	.59			
	50대이후부터	75	4.21	.60			

*p<.05, **p<.01, ***p<.00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의 균형 추구 차이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의 균형 추구 집단 간 차이 결과는 <표 3-3>과 같다.

먼저, 연령에 따른 생활의 균형 추구 차이를 살펴보면, 40~49세 4.1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50~59세 4.12점, 60~64세 4.07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읍면동 지역에 따른 생활의 균형 추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동지역이 4.16점으로 읍면지역 4.06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주 거주에 따른 생활의 균형 추구 차이를 살펴보면, 제주에 거주하는 제주지역 여성이 4.14점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타지역 여성 4.09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생활의 균형 추구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666, p<.01$). 대학원(재학)이상이 4.3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2~4년제포함)이 4.15점, 고등학교 졸업 이하 4.00점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에 따른 생활의 균형 추구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4.14점으로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4.0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년여성 본인이 정기적 급여생활에 따른 생활의 균형 추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648, p<.01$).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4.16점으로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9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시기에 따른 생활의 균형 추구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047, p<.05$). 20대부터 4.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부터 4.14점, 40대부터 4.11점, 50대이후부터 4.05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의 균형 추구 차이 분석

(N=344)

항목	구분	N	평균 (M)	표준 편차 (SD)	t/F	p	사후 검정
연령	40~49	95	4.19	.48	1.127	.325	
	50~59	198	4.12	.49			
	60~64	51	4.07	.49			
읍면동 지역	동지역	239	4.16	.48	11.809	.071	
	읍면지역	105	4.06	.50			
제주 거주	제주지역여성	265	4.14	.49	.800	.425	
	타지역여성	78	4.09	.46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a	93	4.00	.58	6.666**	.001	a,b<c (Dmrtt)
	대학교졸업 ^b (2~4년제포함)	206	4.15	.45			
	대학원(재학)이상 ^c	45	4.32	.38			
배우자 정기적 급여생활	유	183	4.14	.49	.858	.392	
	무	65	4.08	.47			
본인 정기적 급여생활	유	284	4.16	.49	2.648**	.008	
	무	59	3.98	.46			
노후 준비 시기	20대부터 ^a	42	4.33	.32	3.047*	.029	a>b,c,d (Dmrtt)
	30대부터 ^b	99	4.14	.45			
	40대부터 ^c	126	4.11	.53			
	50대이후부터 ^d	75	4.05	.50			

*p<.05, **p<.01, ***p<.001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능력 발휘 추구 차이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능력발휘 추구 집단 간 차이 결과는 <표 3-4>와 같다.

먼저, 연령에 따른 능력발휘 추구 차이를 살펴보면, 40~49세, 60~64세 연령이 3.78점으로 같게 나타났고, 50~59세 3.77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읍면동 지역에 따른 능력발휘 추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동지역이 3.79점으로 읍면지역 3.7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주 거주에 따른 능력발휘 추구 차이를 살펴보면, 제주에 거주하는 제주지역 여성이 3.78점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타 지역 여성 3.76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능력발휘 추구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093, p<.01$). 대학원(재학)이상이 4.0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2~4년제포함)이 3.75점, 고등학교 졸업 이하 3.70점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에 따른 능력발휘 추구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3.79점으로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7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년여성 본인이 정기적 급여생활에 따른 능력발휘 추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135, p<.05$).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3.81점으로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6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시기에 따른 능력발휘 추구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부터 3.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50대이후부터 3.77점, 30대부터 3.76점, 40대부터 3.75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능력 발휘 추구 차이 분석

(N=344)

항목	구분	N	평균 (M)	표준 편차 (SD)	t/F	p	사후 검정
연령	40~49	95	3.78	.69			
	50~59	198	3.77	.63			
	60~64	51	3.78	.64			
읍면동 지역	동지역	239	3.79	.66	.670	.504	
	읍면지역	105	3.74	.61			
제주 거주	제주지역여성	265	3.78	.64	.181	.857	
	타지역여성	78	3.76	.66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a	93	3.70	.67	5.93**	.007	a,b<c (Scheffe)
	대학교졸업 ^b (2~4년제포함)	206	3.75	.62			
	대학원(재학)이상 ^c	45	4.06	.63			
배우자 정기적 급여생활	유	183	3.79	.68	.695	.488	
	무	65	3.72	.67			
본인 정기적 급여생활	유	284	3.81	.64	2.135*	.033	
	무	59	3.61	.64			
노후 준비 시기	20대부터	42	3.93	.60	.851	.467	
	30대부터	99	3.76	.70			
	40대부터	126	3.75	.64			
	50대이후부터	75	3.77	.61			

*p<.05, **p<.01, ***p<.001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전체) 차이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평균 차이 결과는 <표 3-5>와 같다.

먼저, 연령에 따른 직업가치관 차이를 살펴보면, 40~49세 4.0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50~59세 3.98점, 60~64세 3.91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읍면동 지역에 따른 직업가치관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4.01점으로 읍면지역 3.90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주거주에 따른 직업가치관 차이를 살펴보면, 제주에 거주하는 제주지역 여성이 3.99점, 제주에 거주하는 타 지역 여성이 3.95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직업가치관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472$, $p<.05$). 대학원(재학)이상이 4.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2~4년제포함)이 3.99점, 고등학교 졸업 이하 3.89점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에 따른 직업가치관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4.00점으로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9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년여성 본인이 정기적 급여생활에 따른 직업가치관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080$, $p<.01$).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4.01점으로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8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시기에 따른 직업가치관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부터가 4.1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부터와 50대이후부터가 3.97점으로 같게 나타났으며, 40대부터 3.94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전체) 차이 분석

(N=344)

항목	구분	N	평균 (M)	표준 편차 (SD)	t/F	p	사후 검정
연령	40~49	95	4.02	.45			
	50~59	198	3.98	.48			
	60~64	51	3.91	.51			
읍면동 지역	동지역	239	4.01	.47	1.941	.053	
	읍면지역	105	3.90	.47			
제주 거주	제주지역여성	265	3.99	.47	.566	.572	
	타지역여성	78	3.95	.50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a	93	3.89	.54	3.472*	.032	a,b<c (Scheffe)
	대학교졸업 ^b (2~4년제포함)	206	3.99	.44			
	대학원(재학)이상 ^c	45	4.12	.45			
배우자 정기적 급여생활	유	183	4.00	.47	1.044	.297	
	무	65	3.93	.44			
본인 정기적 급여생활	유	284	4.01	.47	3.080*	.002	
	무	59	3.81	.48			
노후 준비 시기	20대부터	42	4.15	.37	2.083	.102	
	30대부터	99	3.97	.46			
	40대부터	126	3.94	.50			
	50대이후부터	75	3.97	.48			

*p<.05, **p<.01, ***p<.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주의 차이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주의 집단 간 차이 결과는 <표 3-6>과 같다.

먼저, 연령에 따른 개인주의 차이를 살펴보면, 50~59세와 60~64세 연령이 3.60점으로 40~49세 3.57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읍면동 지역에 따른 개인주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동지역이 3.59점으로 읍면지역 3.5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주 거주에 따른 개인주의 차이를 살펴보면, 제주에 거주하는 제주지역 여성과 제주에 거주하는 타 지역여성이 3.59점으로 같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개인주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2.794, p<.001$). 대학원(재학)이상이 4.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2~4년제포함)이 3.56점,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5점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에 따른 개인주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3.65점으로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5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년여성 본인이 정기적 급여생활에 따른 개인주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390, p<.05$).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3.62점으로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4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시기에 따른 개인주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부터 3.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부터 3.62점, 40대부터 3.59점, 50대이후부터 3.50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6>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주의 차이 분석

(N=344)

항목	구분	N	평균 (M)	표준 편차 (SD)	t/F	p	사후 검정
연령	40~49	95	3.57	.61			
	50~59	198	3.60	.64			
	60~64	51	3.60	.62			
읍면동 지역	동지역	239	3.59	.65	.338	.736	
	읍면지역	105	3.57	.57			
제주 거주	제주지역여성	265	3.59	.64	-.002	.998	
	타지역여성	78	3.59	.57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a	93	3.45	.68	1.794**	.000	a,b<c (Scheffe)
	대학교졸업 ^b (2~4년제포함)	206	3.56	.53			
	대학원(재학)이상 ^c	45	4.00	.75			
배우자 정기적 급여생활	유	183	3.65	.64	1.255	.210	
	무	65	3.54	.63			
본인 정기적 급여생활	유	284	3.62	.63	2.390*	.017	
	무	59	3.41	.58			
노후 준비 시기	20대부터	42	3.65	.65	.687	.561	
	30대부터	99	3.62	.70			
	40대부터	126	3.59	.57			
	50대이후부터	75	3.50	.60			

*p<.05, **p<.01, ***p<.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주의 차이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주의 집단 간 차이 결과는 <표 3-7>와 같다.

먼저, 연령에 따른 개인주의 차이를 살펴보면, 50~59세 3.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64세 3.96점, 40~49세 3.93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읍면동 지역에 따른 집단주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동지역이 3.98점으로 읍면지역 3.9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주 거주에 따른 집단주의 차이를 살펴보면, 제주에 거주하는 제주지역 여성이 3.97점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타 지역여성 3.92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집단주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321$, $p<.01$). 대학원(재학)이상이 4.1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2~4년제포함)이 3.93점,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0점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에 따른 집단주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4.00점으로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9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년여성 본인이 정기적 급여생활에 따른 집단주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644$, $p<.01$).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3.99점으로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80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시기에 따른 집단주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부터 4.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40대부터 3.97점, 20대부터 3.96점, 50대이후부터 3.88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주의 차이 분석

(N=344)

항목	구분	N	평균 (M)	표준 편차 (SD)	t/F	p	사후 검정
연령	40~49	95	3.93	.51	.216	.806	
	50~59	198	3.97	.50			
	60~64	51	3.96	.55			
읍면동 지역	동지역	239	3.98	.54	1.061	.290	
	읍면지역	105	3.91	.44			
제주 거주	제주지역여성	265	3.97	.51	.736	.462	
	타지역여성	78	3.92	.51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a	93	3.90	.55	5.321**	.005	a,b<c (Scheffe)
	대학교졸업 ^b (2~4년제포함)	206	3.93	.48			
	대학원(재학)이상 ^c	45	4.19	.55			
배우자 정기적 급여생활	유	183	4.00	.51	.821	.413	
	무	65	3.93	.53			
본인 정기적 급여생활	유	284	3.99	.52	2.644**	.009	
	무	59	3.80	.47			
노후 준비 시기	20대부터	42	3.96	.63	.762	.516	
	30대부터	99	4.00	.55			
	40대부터	126	3.97	.45			
	50대이후부터	75	3.88	.49			

*p<.05, **p<.01, ***p<.00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전체) 차이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집단 간 차이 결과는 <표 3-8>과 같다.

먼저,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를 살펴보면, 50~59세와 60~64세 연령이 3.78점으로 40~49세 3.75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읍면동 지역에 따른 자아존중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동지역이 3.79점으로 읍면지역 3.7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주 거주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를 살펴보면, 제주에 거주하는 제주지역 여성이 3.78점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타 지역여성 3.75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자아존중감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0.451, p<.001$). 대학원(재학)이상이 4.0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2~4년제포함)이 3.75점,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8점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에 따른 자아존중감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3.82점으로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7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년여성 본인이 정기적 급여생활에 따른 자아존중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698, p<.01$).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3.81점으로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60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시기에 따른 자아존중감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부터와 30대부터가 3.8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40대부터 3.78점, 50대이후부터 3.69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전체) 차이 분석

(N=344)

항목	구분	N	평균 (M)	표준 편차 (SD)	t/F	p	사후 검정
연령	40~49	95	3.75	.52	.151	.860	
	50~59	198	3.78	.53			
	60~64	51	3.78	.56			
읍면동 지역	동지역	239	3.79	.56	.763	.446	
	읍면지역	105	3.74	.46			
제주 거주	제주지역여성	265	3.78	.54	.365	.715	
	타지역여성	78	3.75	.50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a	93	3.68	.56	1.45***	.000	a,b<c (Scheffe)
	대학교졸업 ^b (2~4년제포함)	206	3.75	.46			
	대학원(재학)이상 ^c	45	4.09	.62			
배우자 정기적 급여생활	유	183	3.82	.54	1.136	.257	
	무	65	3.73	.53			
본인 정기적 급여생활	유	284	3.81	.54	2.698**	.007	
	무	59	3.60	.46			
노후 준비 시기	20대부터	42	3.81	.60	.790	.500	
	30대부터	99	3.81	.59			
	40대부터	126	3.78	.47			
	50대이후부터	75	3.69	.49			

*p<.05, **p<.01, ***p<.00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차이 분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율적인 삶 차이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율적인 삶 집단 간 차이 결과는 <표 3-9>와 같다.

먼저, 연령에 따른 자율적인 삶 차이를 살펴보면, 40~49세, 50~59세가 3.98점으로 같게 높았고 60~64세 3.96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읍면동 지역에 따른 자율적인 삶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동지역이 4.00점으로 읍면지역 3.9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주 거주에 따른 자율적인 삶 차이를 살펴보면, 제주에 거주하는 제주지역 여성이 3.99점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타지역 여성 3.91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자율적인 삶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811, p<.01$). 대학원(재학)이상이 4.1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2~4년제포함)이 3.96점,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0점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에 따른 자율적인 삶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4.02점으로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96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년여성 본인이 정기적 급여생활에 따른 자율적인 삶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4.00점으로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8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후준비 시기에 따른 자율적인 삶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부터 4.0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40대부터 4.00점, 20대부터 3.96점, 50대이후부터 3.89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율적인 삶 차이 분석

(N=344)

항목	구분	N	평균 (M)	표준 편차 (SD)	t/F	p	사후 검정
연령	40~49	95	3.98	.49	.016	.984	
	50~59	198	3.98	.44			
	60~64	51	3.96	.48			
읍면동 지역	동지역	239	4.00	.48	1.425	.155	
	읍면지역	105	3.92	.40			
제주 거주	제주지역여성	265	3.99	.46	1.352	.177	
	타지역여성	78	3.91	.44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a	93	3.90	.45	5.811**	.003	a,b<c (Scheffe)
	대학교졸업 ^b (2~4년제포함)	206	3.96	.45			
	대학원(재학)이상 ^c	45	4.18	.48			
배우자 정기적 급여생활	유	183	4.02	.47	.923	.357	
	무	65	3.96	.43			
본인 정기적 급여생활	유	284	4.00	.47	1.950	.052	
	무	59	3.87	.42			
노후 준비 시기	20대부터	42	3.96	.50	1.316	.269	
	30대부터	99	4.02	.48			
	40대부터	126	4.00	.42			
	50대이후부터	75	3.89	.46			

*p<.05, **p<.01, ***p<.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완성지향 차이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완성지향 집단 간 차이 결과는 <표 3-10>과 같다.

먼저, 연령에 따른 자기완성지향 차이를 살펴보면, 50~59세가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60~64세 3.62점, 40~49세가 3.5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읍면동 지역에 따른 자기완성지향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읍면지역이 3.65점으로 동지역 3.60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주 거주에 따른 자기완성지향 차이를 살펴보면, 제주에 거주하는 제주에 거주하는 타지역 여성 3.64점으로 제주지역 여성이 3.60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자기완성지향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1.872$, $p<.001$). 대학원(재학)이상이 3.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2~4년제포함)이 3.61점,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3점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에 따른 자기완성지향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3.66점으로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5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년여성 본인이 정기적 급여생활에 따른 자율적인 삶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3.64점으로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4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후준비 시기에 따른 자기완성지향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부터와 30대부터가 3.73점으로 같이 가장 높았으며, 50대이후부터 3.57점, 40대부터 3.50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완성지향 차이 분석

(N=344)

항목	구분	N	평균 (M)	표준 편차 (SD)	t/F	p	사후 검정
연령	40~49	95	3.58	.66	.171	.843	
	50~59	198	3.63	.63			
	60~64	51	3.62	.57			
읍면동 지역	동지역	239	3.60	.65	-.674	.501	
	읍면지역	105	3.65	.56			
제주 거주	제주지역여성	265	3.60	.65	-.558	.577	
	타지역여성	78	3.64	.654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a	93	3.43	.68	1182 ^{**}	.000	a,b<c (Scheffe)
	대학교졸업 ^b (2~4년제포함)	206	3.61	.57			
	대학원(재학)이상 ^c	45	3.98	.61			
배우자 정기적 급여생활	유	183	3.66	.64	1.399	.163	
	무	65	3.53	.66			
본인 정기적 급여생활	유	284	3.64	.63	1.811	.071	
	무	59	3.48	.61			
노후 준비 시기	20대부터 ^a	42	3.73	.64	3.185 [*]	.024	a,b>c,d (Scheffe)
	30대부터 ^b	99	3.73	.64			
	40대부터 ^c	126	3.50	.61			
	50대이후부터 ^d	75	3.57	.61			

*p<.05, **p<.01, ***p<.00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극적 인생 참여 차이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극적 인생 참여 집단 간 차이 결과는 <표 3-11>과 같다.

먼저, 연령에 따른 적극적 인생 참여 차이를 살펴보면, 60~64세 연령이 3.76점으로 가장 높았고 50~59세가 3.72점, 40~49세가 3.6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읍면동 지역에 따른 적극적 인생 참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동지역 3.74점으로 읍면지역 3.63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주 거주에 따른 적극적 인생 참여 차이를 살펴보면, 제주에 거주하는 제주지역 여성이 3.72점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타지역 여성 3.62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적극적 인생 참여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603$, $p<.01$). 대학원(재학)이상이 3.9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2~4년제포함)이 3.70점, 고등학교 졸업 이하 3.58점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에 따른 적극적 인생 참여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3.78점으로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6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년여성 본인이 정기적 급여생활에 따른 적극적 인생 참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3.73점으로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5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후준비 시기에 따른 적극적 인생 참여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부터 3.7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40대부터 3.72점, 30대부터 3.71점, 50대이후부터 3.65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극적 인생 참여 차이 분석

(N=344)

항목	구분	N	평균 (M)	표준 편차 (SD)	t/F	p	사후 검정
연령	40~49	95	3.63	.75	.778	.460	
	50~59	198	3.72	.65			
	60~64	51	3.76	.61			
읍면동 지역	동지역	239	3.74	.68	1.355	.176	
	읍면지역	105	3.63	.65			
제주 거주	제주지역여성	265	3.72	.66	1.155	.249	
	타지역여성	78	3.62	.71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a	93	3.58	.69	5.603**	.004	a,b<c (Scheffe)
	대학교졸업 ^b (2~4년제포함)	206	3.70	.66			
	대학원(재학)이상 ^c	45	3.99	.65			
배우자 정기적 급여생활	유	183	3.78	.66	1.431	.154	
	무	65	3.64	.71			
본인 정기적 급여생활	유	284	3.73	.68	1.851	.065	
	무	59	3.55	.65			
노후 준비 시기	20대부터	42	3.74	.76	.200	.897	
	30대부터	99	3.71	.78			
	40대부터	126	3.72	.56			
	50대이후부터	75	3.65	.66			

*p<.05, **p<.01, ***p<.001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만족 차이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만족 집단 간 차이 결과는 <표 3-12>와 같다.

먼저, 연령에 따른 자녀에 대한 만족 차이를 살펴보면, 40~49세가 4.10점으로 가장 높았고 60~64세 4.06점, 50~59세가 4.0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읍면동 지역에 따른 자녀에 대한 만족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동지역 4.05점으로 읍면지역 4.04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주 거주에 따른 자녀에 대한 만족 차이를 살펴보면, 제주에 거주하는 제주지역 여성이 4.06점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타지역 여성 4.00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자녀에 대한 만족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대학원(재학)이상이 4.2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2~4년제포함)이 4.05점,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8점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에 따른 자녀에 대한 만족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4.11점으로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4.0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년여성 본인이 정기적 급여생활에 따른 자녀에 대한 만족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4.07점으로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9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후준비 시기에 따른 자녀에 대한 만족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부터 4.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40대부터 4.09점, 30대부터 4.05점, 50대이후부터 3.93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만족 차이 분석

(N=344)

항목	구분	N	평균 (M)	표준 편차 (SD)	t/F	p	사후 검정
연령	40~49	95	4.10	.60			
	50~59	198	4.03	.51			
	60~64	51	4.06	.54			
읍면동 지역	동지역	239	4.05	.56	.203	.839	
	읍면지역	105	4.04	.48			
제주 거주	제주지역여성	265	4.06	.53	.933	.351	
	타지역여성	78	4.00	.57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93	3.98	.56	2.883	.057	
	대학교졸업 (2~4년제포함)	206	4.05	.53			
	대학원(재학)이상	45	4.21	.50			
배우자 정기적 급여생활	유	183	4.11	.53	1.272	.205	
	무	65	4.01	.56			
본인 정기적 급여생활	유	284	4.07	.55	1.600	.111	
	무	59	3.95	.48			
노후 준비 시기	20대부터	42	4.17	.58	2.268	.080	
	30대부터	99	4.05	.59			
	40대부터	126	4.09	.47			
	50대이후부터	75	3.93	.54			

*p<.05, **p<.01, ***p<.001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수용 차이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수용 집단 간 차이 결과는 <표 3-13>과 같다.

먼저, 연령에 따른 자기수용 차이를 살펴보면, 60~64세 연령이 3.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49세, 50~59세가 3.71점으로 같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읍면동 지역에 따른 자기수용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121$, $p<.05$). 동지역이 3.77점으로 읍면지역 3.60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거주에 따른 자기수용 차이를 살펴보면, 제주에 거주하는 제주지역 여성이 3.73점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타 지역여성 3.66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자기수용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0.028$, $p<.001$). 대학원(재학)이상이 4.1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2~4년제포함)이 3.66점,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4점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에 따른 자기수용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235$, $p<.05$).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3.82점으로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6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 본인이 정기적 급여생활에 따른 자기수용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3.74점으로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5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시기에 따른 자기수용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부터 3.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대부터 3.71점, 40대부터 3.70점, 50대이후부터 3.68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수용 차이 분석

(N=344)

항목	구분	N	평균 (M)	표준 편차 (SD)	t/F	p	사후 검정
연령	40~49	95	3.71	.72	.170	.844	
	50~59	198	3.71	.64			
	60~64	51	3.77	.54			
읍면동 지역	동지역	239	3.77	.65	2.121*	.035	
	읍면지역	105	3.60	.65			
제주 거주	제주지역여성	265	3.73	.64	.885	.377	
	타지역여성	78	3.66	.69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a	93	3.64	.66	1008***	.000	a,b<c (Scheffe)
	대학교졸업 ^b (2~4년제포함)	206	3.66	.63			
	대학원(재학)이상 ^c	45	4.11	.57			
배우자 정기적 급여생활	유	183	3.82	.61	2.235*	.026	
	무	65	3.61	.77			
본인 정기적 급여생활	유	284	3.74	.65	1.918	.056	
	무	59	3.57	.62			
노후 준비 시기	20대부터	42	3.71	.69	.224	.880	
	30대부터	99	3.76	.71			
	40대부터	126	3.70	.62			
	50대이후부터	75	3.68	.62			

*p<.05, **p<.01, ***p<.001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타인수용 차이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타인수용 집단 간 차이 결과는 <표 3-14>와 같다.

먼저, 연령에 따른 타인수용 차이를 살펴보면, 60~64세 연령이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 50~59세 3.53점, 40~49세 3.4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읍면동 지역에 따른 타인수용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동지역 3.57점으로 읍면지역 3.48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주 거주에 따른 타인수용 차이를 살펴보면, 제주에 거주하는 타지역 여성이 3.55점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제주지역 여성이 3.54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타인수용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8.565$, $p<.001$). 대학원(재학)이상이 3.8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 3.55점, 대학교 졸업(2~4년제포함) 3.47점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에 따른 타인수용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54점으로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3.5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년여성 본인이 정기적 급여생활에 따른 타인수용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3.56점으로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46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후준비 시기에 따른 타인수용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50대이후부터 3.5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부터 3.55점 40대부터 3.54점, 20대부터 3.51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1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타인수용 차이 분석

(N=344)

항목	구분	N	평균 (M)	표준 편차 (SD)	t/F	p	사후 검정
연령	40~49	95	3.49	.66	2.307	.101	
	50~59	198	3.53	.59			
	60~64	51	3.71	.64			
읍면동 지역	동지역	239	3.57	.63	1.215	.225	
	읍면지역	105	3.48	.58			
제주 거주	제주지역여성	265	3.54	.62	-.120	.904	
	타지역여성	78	3.55	.61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a	93	3.55	.66	8.55***	.000	a,b<c (Scheffe)
	대학교졸업 ^b (2~4년제포함)	206	3.47	.57			
	대학원(재학)이상 ^c	45	3.88	.64			
배우자 정기적 급여생활	유	183	3.53	.60	-.070	.944	
	무	65	3.54	.64			
본인 정기적 급여생활	유	284	3.56	.61	1.075	.283	
	무	59	3.46	.63			
노후 준비 시기	20대부터	42	3.51	.71	.095	.963	
	30대부터	99	3.55	.66			
	40대부터	126	3.54	.60			
	50대이후부터	75	3.57	.55			

*p<.05, **p<.01, ***p<.001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전체) 차이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집단 간 차이 결과는 <표 3-15>와 같다.

먼저, 연령에 따른 성공적 노화 차이를 살펴보면, 60~64세 연령이 3.8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59세 3.81점, 40~49세 3.7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읍면동 지역에 따른 성공적 노화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동지역이 3.82점으로 읍면지역 3.7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주 거주에 따른 성공적 노화 차이를 살펴보면, 제주에 거주하는 제주지역 여성이 3.82점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타 지역여성 3.77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성공적 노화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0.544$, $p<.001$). 대학원(재학)이상이 4.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2~4년제포함)이 3.79점, 고등학교 졸업 이하 3.71점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에 따른 성공적 노화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3.86점으로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76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년여성 본인이 정기적 급여생활에 따른 성공적 노화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208$, $p<.05$). 정기적 급여 생활하는 여성의 평균 3.83점으로 정기적 급여 생활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3.69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시기에 따른 성공적 노화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부터와 30대부터가 3.8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40대부터 3.80점, 50대이후부터 3.74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1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전체) 차이 분석

(N=344)

항목	구분	N	평균 (M)	표준 편차 (SD)	t/F	p	사후 검정
연령	40~49	95	3.79	.50			
	50~59	198	3.81	.43			
	60~64	51	3.84	.45			
읍면동 지역	동지역	239	3.82	.48	1.147	.253	
	읍면지역	105	3.77	.39			
제주 거주	제주지역여성	265	3.82	.46	.821	.412	
	타지역여성	78	3.77	.43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a	93	3.71	.46	1054***	.000	a,b<c (Scheffe)
	대학교졸업 ^b (2~4년제포함)	206	3.79	.42			
	대학원(재학)이상 ^c	45	4.08	.51			
배우자 정기적 급여생활	유	183	3.86	.47	1,500	.135	
	무	65	3.76	.46			
본인 정기적 급여생활	유	284	3.83	.46	2.208*	.028	
	무	59	3.69	.40			
노후 준비 시기	20대부터	42	3.85	.50	866	.459	
	30대부터	99	3.85	.51			
	40대부터	126	3.80	.41			
	50대이후부터	75	3.74	.43			

*p<.05, **p<.01, ***p<.001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연구모형에 있는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표 3-16>과 같다.

먼저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제주거주, 배우자 급여생활은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변수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성공적노화 하위요인에서는 연령, 제주거주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읍면동 거주는 직업가치관의 하위요인인 물질적 보상 추구($r=.121, p<.05$), 성공적 노화의 하위요인인 자기수용($r=.114, p<.05$)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최종학력은 직업가치관의 하위요인인 생활균형 추구($r=.194, p<.01$), 능력 발휘 추구($r=.144, p<.01$), 자아존중감과 성공적 노화 전체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노후준비 시기는 직업가치관의 하위요인인 생활균형 추구($r=.145, p<.01$), 성공적 노화의 하위요인인 자녀에 대한 만족($r=.113, p<.05$)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업가치관의 하위요인 물질적 보상, 안정성, 생활균형, 능력 발휘 추구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개인주의, 집단주의 관계에서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성공적 노화의 하위요인 자율적인 삶, 자기완성지향, 적극적 인생,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수용, 타인수용은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 전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3-16>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N=344)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연령	1																			
2.읍면동거주	-.014	1																		
3.제주거주	.000	.213**	1																	
4.최종학력	-.229**	.157**	.089	1																
5.배우자급여 유무	-.242**	.002	.009	.164**	1															
6.본인급여 유무	-.176**	.100	.070	.059	.216**	1														
7.노후준비시기	.165**	.043	.112*	-.155**	-.102	-.144**	1													
직업가치관	8.물질적 보상 추구	-.104	.121*	.047	.060	.028	.121*	-.012	1											
	9.안정성추구	-.076	.101	.003	.021	.084	.155**	-.079	.656**	1										
	10.생활균형 추구	-.080	.097	.043	.194**	.055	.142**	-.145**	.419**	.527**	1									
	11.능력발휘 추구	.001	.036	.010	.144**	.044	.115*	-.032	.451**	.397**	.584**	1								
자아존중감	12.개인주의	.018	.018	.000	.233**	.080	.128*	-.074	.230**	.168**	.312**	.570**	1							
	13.집단주의	.036	.057	.040	.141**	.052	.142**	-.061	.172**	.205**	.282**	.472**	.721**	1						
성공적노화	14.자율적인 삶	-.007	.077	.073	.165**	.039	.105	-.063	.155**	.207**	.324**	.407**	.621**	.689**	1					
	15.자기완성	.023	-.036	-.030	.246**	.089	.098	-.125*	.209**	.210**	.380**	.588**	.683**	.571**	.562**	1				
	16.적극인생 참여	.065	.073	.062	.168**	.091	.100	-.034	.161**	.113*	.231**	.405**	.614**	.677**	.621**	.563**	1			
	17.자녀만족	-.033	.011	.050	.123*	.081	.086	-.113*	.144**	.222**	.353**	.406**	.443**	.540**	.640**	.565**	.517**	1		
	18.자기수용	.022	.114*	.048	.177**	.141*	.103	-.029	.122*	.151**	.335**	.471**	.564**	.560**	.527**	.676**	.522**	.567**	1	
	19.타인수용	.009	.066	-.007	.112*	-.004	.058	.023	.125*	.120*	.329**	.450**	.435**	.461**	.436**	.512**	.415**	.427**	.529**	1
	20.성공적 노화전체	.029	.057	.044	.216**	.095	.119*	-.082	.200**	.222**	.407**	.577**	.729**	.756**	.842**	.833**	.795**	.785**	.775**	.649**

* p<.05, ** p<.01, *** p<.001

1)더미거주지역 ②=읍면지역, ①=동지역, 2) 더미제주고향 ②=타지역, ①=제주, 3)더미배우자정기급여 ②=무, ①=유, 4)더미본인정기급여 ②=무, ①=유

5.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1)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성공적 노화(전체)에 미치는 영향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성공적 노화(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이 성공적 노화(전체)에 미치는 영향

모형		B	SE	β	t	p
(상수)		.668	.209		3.197**	.002
연령		.027	.028	.036	.954	.341
거주지역 ¹⁾		-.017	.038	-.016	-.431	.667
제주고향 ²⁾		.012	.041	.011	.300	.765
최종학력		.043	.031	.055	1.385	.167
배우자 급여 ³⁾		.052	.040	.048	1.299	.195
본인 급여 ⁴⁾		-.014	.046	-.011	-.301	.763
노후준비 시기		-.006	.018	-.011	-.304	.761
직 업 가 치 관	물질적보상추구	-.030	.032	-.044	-.936	.350
	안정성 추구	-.020	.040	.024	.500	.618
	생활균형 추구	.050	.046	.051	1.086	.279
	능력발휘 추구	.122	.036	.176	3.369**	.001
자아 존중 감	개인주의	.237	.042	.324	5.613***	.000
	집단주의	.384	.048	.425	8.033***	.000

$R^2=.720$, adjusted $R^2=.705$, $F=45.748^{**}$, $P=.000$, Durbin-Watson=1.991

* $p<.05$, ** $p<.01$, *** $p<.001$

1)더미거주지역 ①=읍면지역, ②=동지역, 2) 더미제주고향 ①=타지역, ②=제주, 3)더미 배우자정기급여 ①=무, ②=유, 4)더미본인정기급여 ①=무, ②=유

성공적 노화(전체)에 대한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Tolerance) 값이 모두 .1이상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 은 1.991로 2에 가까워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다. 이때 회귀식에 대한 $R^2=.720$ 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72.0%이다($F=45.748$, $p=.000$).

분석결과 성공적 노화(전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직업 가치관의 하위요인 중 능력 발휘추구($\beta=.176$, $p=.001$)와 자아존중감 중 개인주의 ($\beta=.324$, $p=.000$), 집단주의($\beta=.425$, $p=.000$)가 성공적 노화(전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능력 발휘추구가 높을수록,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높을수록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화(전체)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집단주의($\beta=.425$)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개인주의($\beta=.324$), 능력 발휘추구($\beta=.176$) 순으로 나타났다.

2)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자율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자율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이 자율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

모형		B	SE	β	t	p
(상수)		1.156	.245		4.714***	.000
연령		-.007	.033	-.010	-.210	.834
거주지역 ¹⁾		.049	.045	.048	1.083	.280
제주고향 ²⁾		.034	.048	.031	.707	.480
최종학력		.001	.036	.002	.039	.969
배우자 급여 ³⁾		-.015	.047	-.014	-.327	.744
본인 급여 ⁴⁾		.025	.054	.021	.467	.641
노후준비 시기		-.011	.021	-.022	-.504	.615
직 업 가 치 관	물질적보상추구	-.053	.037	-.079	-1.411	.160
	안정성 추구	.085	.047	.104	1.795	.074
	생활균형 추구	.020	.054	.021	.378	.706
	능력발휘 추구	.016	.043	.024	.382	.703
자아 존중 감	개인주의	.192	.050	.267	3.870***	.000
	집단주의	.459	.056	.516	8.178***	.000

$R^2=.601$ adjusted $R^2=.579$ $F=26.819^{***}$ $P=.000$ Durbin-Watson=2.078

* $p<.05$, ** $p<.01$, *** $p<.001$

1) 더미거주지역 ①=읍면지역, ②=동지역, 2) 더미제주고향 ①=타지역, ②=제주, 3) 더미배우자정기급여 ①=무, ②=유, 4) 더미본인정기급여 ①=무, ②=유

자율적인 삶에 대한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Tolerance) 값이 모두 .1이상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 는 2.078로 2에 가까워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다. 이때 회귀식에 대한 $R^2=.601$ 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0.1%이다($F=26.819$, $p=.000$).

분석결과 자율적인 삶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개인주의($\beta=.267$, $p=.000$), 집단주의($\beta=.516$, $p=.000$)가 자율적인 삶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높을수록 중년여성의 자율적인 삶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집단주의($\beta=.516$)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개인주의($\beta=.267$)로 나타났다.

3)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자기완성 지향에 미치는 영향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자기완성 지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이 자기완성 지향에 미치는 영향

모형		B	SE	β	t	p
(상수)		.373	.353		1.056	.292
연령		.058	.048	.057	1.224	.222
거주지역 ¹⁾		-.157	.065	-.111	-2.426*	.016
제주고향 ²⁾		-.038	.070	-.025	.550	.583
최종학력		.114	.052	.106	2.193*	.029
배우자 급여 ³⁾		.079	.067	.053	1.172	.242
본인 급여 ⁴⁾		-.020	.078	-.012	-.261	.794
노후준비 시기		-.031	.031	-.046	-1.019	.309
직 업 가 치 관	물질적보상추구	-.040	.054	-.042	-.735	.463
	안정성 추구	-.020	.068	-.017	-.293	.770
	생활균형 추구	.070	.077	.053	.910	.364
	능력발휘 추구	.275	.061	.288	4.492***	.000
자아 존중 감	개인주의	.413	.071	.411	5.792***	.000
	집단주의	.130	.081	.105	1.613	.108

$R^2=.578$ adjusted $R^2=.554$ $F=24.313^{***}$ $P=.000$ Durbin-Watson=2.221

* $p<.05$, ** $p<.01$, *** $p<.001$

1)더미거주지역 ①=읍면지역, ②=동지역, 2) 더미제주고향 ①=타지역, ②=제주, 3)더미배우자정기급여 ①=무, ②=유, 4)더미본인정기급여 ①=무, ②=유

자기완성 지향에 대한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Tolerance) 값이 모두 .1이상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 은 2.221로 2에 가까워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다. 이때 회귀식에 대한 $R^2=.578$ 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7.8.0%이다($F=24.313$, $p=.000$).

분석결과 자기완성 지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직업가치관의 하위요인 중 능력발휘추구($\beta=.288$, $p=.000$)와 자아존중감 중 개인주의($\beta=.411$, $p=.000$)가 자기완성 지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능력발휘추구가 높을수록, 개인주의가 높을수록 중년여성의 자기완성 지향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개인주의($\beta=.411$)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으로 능력발휘추구($\beta=.288$)로 나타났다.

4)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적극적 인생 참여에 미치는 영향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적극적 인생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4>과 같다.

<표 4-4>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이 적극적 인생 참여에 미치는 영향

모형		B	SE	β	t	p
(상수)		-.107	.396		-.271	.787
연령		.097	.053	.091	1.818	.070
거주지역 ¹⁾		.015	.073	.010	.207	.836
제주고향 ²⁾		.057	.078	.035	.724	.470
최종학력		.065	.058	.058	1.116	.266
배우자 급여 ³⁾		.097	.076	.063	1.287	.199
본인 급여 ⁴⁾		.030	.088	.017	.348	.728
노후준비 시기		.011	.035	.015	.323	.747
직 업 가 치 관	물질적보상추구	.054	.061	.055	.894	.372
	안정성 추구	-.043	.076	-.036	-.565	.573
	생활균형 추구	-.064	.087	-.046	-.739	.461
	능력발휘 추구	.082	.069	.082	1.198	.232
자아 존중 감	개인주의	.229	.080	.218	2.871**	.004
	집단주의	.619	.091	.474	6834***	.000

$R^2=.518$ adjusted $R^2=.491$ $F=19.125^{***}$ $P=.000$ Durbin-Watson=2.043

* $p<.05$, ** $p<.01$, *** $p<.001$

1) 더미거주지역 ①=읍면지역, ②=동지역, 2) 더미제주고향 ①=타지역, ②=제주, 3) 더미배우자정기급여 ①=무, ②=유, 4) 더미본인정기급여 ①=무, ②=유

적극적 인생 참여에 대한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Tolerance) 값이 모두 .1이상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 은 2.043로 2에 가까워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다. 이때 회귀식에 대한 $R^2=.518$ 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1.8%이다($F=45.748$, $p=.000$).

분석결과 적극적 인생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자아 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개인주의($\beta=.218$, $p=.001$), 집단주의($\beta=.474$, $p=.000$)가 적극적 인생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높을수록 중년여성의 적극적 인생 참여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집단주의($\beta=.474$)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개인주의($\beta=.218$)로 나타났다.

5)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자녀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자녀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5>과 같다.

<표 4-5>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이 자녀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

모형		B	SE	β	t	p
(상수)		1.087	.348		3.121**	.002
연령		-.038	.047	-.045	-.815	.416
거주지역 ¹⁾		-.070	.064	-.059	-1.095	.275
제주고향 ²⁾		.073	.069	.056	1.057	.292
최종학력		-.011	.051	-.013	-.222	.825
배우자 급여 ³⁾		.056	.067	.045	.834	.405
본인 급여 ⁴⁾		-.007	.077	-.005	-.086	.932
노후준비 시기		-.025	.030	-.043	-.817	.415
직 업 가 치 관	물질적보상추구	-.027	.053	-.035	-.512	.609
	안정성 추구	.092	.067	.097	1.369	.172
	생활균형 추구	.120	.076	.108	1.578	.116
	능력발휘 추구	.090	.060	.113	1.493	.137
자아 존중 감	개인주의	.069	.070	.083	.986	.325
	집단주의	.437	.080	.421	5.483***	.000

$R^2=.410$ adjusted $R^2=.377$ $F=12.361^{***}$ $P=.000$ Durbin-Watson=1.657

* $p<.05$, ** $p<.01$, *** $p<.001$

1) 더미거주지역 ①=읍면지역, ②=동지역, 2) 더미제주고향 ①=타지역, ②=제주, 3) 더미배우자정기급여 ①=무, ②=유, 4) 더미본인정기급여 ①=무, ②=유

자녀에 대한 만족에 대한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Tolerance) 값이 모두 .1이상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 는 1.657로 2에 가까워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다. 이때 회귀식에 대한 $R^2=.410$ 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1.0%이다($F=1.657$, $p=.000$).

분석결과 자녀에 대한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자아 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집단주의($\beta=.421$, $p=.000$)가 자녀에 대한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주의가 높을수록 중년여성의 자녀에 대한 만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6)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이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

모형		B	SE	β	t	p
(상수)		.174	.398		.437	.662
연령		.017	.054	.017	.321	.749
거주지역 ¹⁾		.056	.073	.039	.764	.445
제주고향 ²⁾		-.016	.079	-.010	-.209	.835
최종학력		.041	.059	.037	.699	.485
배우자 급여 ³⁾		.173	.076	.114	2.275	.024
본인 급여 ⁴⁾		-.111	.088	-.063	-1.262	.208
노후준비 시기		.029	.035	.042	.845	.399
직업가치관	물질적보상추구	-.096	.061	-.100	-1.569	.118
	안정성 추구	.035	.077	.030	.455	.649
	생활균형 추구	.098	.087	.072	1.127	.261
	능력발휘 추구	.144	.069	.147	2.079	.039
자아존중감	개인주의	.359	.080	.349	4.461***	.000
	집단주의	.329	.091	.258	3.605***	.000

$R^2=.488$ adjusted $R^2=.459$ $F=16.906^{***}$ $P=.000$ Durbin-Watson=2.178

* $p<.05$, ** $p<.01$, *** $p<.001$

1)더미거주지역 ①=읍면지역, ②=동지역, 2) 더미제주고향 ①=타지역, ②=제주, 3)더미배우자정기급여 ①=무, ②=유, 4)더미본인정기급여 ①=무, ②=유

자기수용에 대한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모두 .1이상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는 2.178로 2에 가까워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다. 이때 회귀식에 대한 $R^2=.488$ 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8.8%이다($F=2.178$, $p=.000$).

분석결과 자기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개인주의($\beta=.349$, $p=.000$), 집단주의($\beta=.258$, $p=.000$)가 자기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높을수록 중년여성의 자기수용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개인주의($\beta=.349$)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집단주의($\beta=.258$)로 나타났다.

7)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타인수용에 미치는 영향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타인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7>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이 타인수용에 미치는 영향

모형		B	SE	β	t	p
(상수)		.881	.409		2.155*	.032
연령		.065	.055	.068	1.180	.239
거주지역 ¹⁾		.034	.075	.025	.449	.654
제주고향 ²⁾		-.097	.081	-.066	-1.201	.231
최종학력		.077	.060	.076	1.278	.203
배우자 급여 ³⁾		-.005	.078	-.003	-.062	.951
본인 급여 ⁴⁾		-.103	.090	-.063	-1.141	.255
노후준비 시기		.033	.036	.051	.924	.357
직 업 가 치 관	물질적보상추구	-.020	.063	-.023	-.327	.744
	안정성 추구	-.122	.079	-.113	-1.542	.124
	생활균형 추구	.121	.089	.096	1.350	.178
	능력발휘 추구	.229	.071	.253	3.229**	.001
자아 존중 감	개인주의	.189	.083	.199	2.294*	.023
	집단주의	.245	.094	.208	2.616**	.009

$R^2=.368$ adjusted $R^2=.333$ $F=10.358^{***}$ $P=.000$ Durbin-Watson=2.110

* $p<.05$, ** $p<.01$, *** $p<.001$

1) 더미거주지역 ①=읍면지역, ②=동지역, 2) 더미제주고향 ①=타지역, ②=제주, 3) 더미배우자정기급여 ①=무, ②=유, 4) 더미본인정기급여 ①=무, ②=유

타인수용에 대한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모두 .1이상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는 2.110으로 2에 가까워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다. 이때 회귀식에 대한 $R^2=.333$ 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3.3%이다($F=10.358$, $p=.000$).

분석결과 타인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직업가치관의 하위요인 중 능력발휘추구($\beta=.253$, $p=.000$)와 자아존중감 중 개인주의($\beta=.199$, $p=.05$), 집단주의($\beta=.208$, $p=.001$)가 타인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능력발휘추구가 높을수록,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높을수록 중년여성의 타인수용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능력발휘추구($\beta=.253$)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집단주의($\beta=.208$), 개인주의($\beta=.199$) 순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파악하여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에서 64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중년여성의 직업가치관에서 물질적보상 추구, 안정성 추구, 생활의 균형 추구, 능력발휘 추구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자아존중감은 개인주의, 집단주의로 구분하여 수준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연령으로는 50~59세가 198명(5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49세가 95명(27.6%), 60~64세가 51명(14.8%)순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거주지역은 서귀포시 동지역이 147명(4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시 동지역이 92명(26.7%),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76명(22.1%), 제주시 읍면지역이 29명(8.4%)순으로 나타났다. 제주거주 제주지역 여성은 265명(77%),이고 제주거주 타지역 여성은 78명(22.7%)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2~4년제 포함)이 206명(59.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93명(27%), 대학원(재학) 이상이 45명(13.1%)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이 있는 여성은 326명(94.8%)이며, 동거가족이 없는 여성은 18명(5.2%)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현재 같이 동거하는 가족구성원중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분 중에서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생활을 하고 있는가 묻는 질문에는 해당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6명(27.9%),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183명(53.2%),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65명(18.9%)이었다. 본인이 현재 정기적인 급여생활을 하고 있는가 묻는 질문에는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284명(82.6%),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59명(17.2%)이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보

통은 221명(64.2%), 중상층은 72명(20.9%)였으며, 중하층은 32명(9.3%), 상층은 10명(2.9%), 하층은 9명(2.6%)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설화나 해녀 등을 통해 나타나는 성실, 근면, 강인함의 제주도 여성의 생활력을 묻는 질문에는 다소 강하다 191명(55.5%), 매우 강하다 94명(27.3%)로 강하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53명(15.4%), 매우약하다 1명(0.3%), 다소약하다 5명(1.5%)순으로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묻는 질문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147명(42.7%), 부동산 등 재테크 76명(22.1%), 저축이나 적금 69명(20.1%), 사적보험(민간 연금성보험 또는 저축보험) 36명(10.5%), 주식 또는 펀드 10명(2.9%), 기타 6명(1.7%)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40대부터가 126명(3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부터가 99명(28.8%), 50대이후부터가 75명(21.8%), 20대부터가 42명(12.2%)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운데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의 정기적 급여 생활을 하는 것이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 성공적 노화 하위변인에 전체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읍면동 거주 지역에서 동지역이 높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노후준비 시기는 20대부터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업가치관, 자아존중감, 성공적 노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바 읍면동 거주는 직업가치관의 하위요인인 물질적 보상 추구, 성공적 노화의 하위요인인 자기수용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최종학력은 직업가치관의 하위요인인 생활균형 추구 성공적 노화의 하위요인인 자녀에 대한 만족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업가치관의 하위요인인 물질적 보상 추구, 안정성 추구, 생활균형 추구, 능력발휘 추구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개인주의, 집단주의 관계에서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성공적 노화 하위요인 자율적인 삶, 자기완성지향, 적극적 인생,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수용, 타인수용은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 전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넷째,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직

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성공적 노화(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직업가치관 중에서는 능력 발휘 추구하고 자아존중감 중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자아존중감 중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완성 지향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직업가치관 중에서는 능력 발휘 추구하고 자아존중감 중 개인주의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 인생 참여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자아존중감 중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자아존중감 중 집단주의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직업가치관 중에서는 능력 발휘 추구하고 자아존중감 중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수용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직업가치관 중에서는 능력 발휘 추구하고 자아존중감 중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조사 분석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년여성의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성공적 노화(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직업가치관 중에서는 능력 발휘 추구하고 자아존중감 중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긍정적 성공적 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가올 초고령 사회의 주력 세대인 중년층들에게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젊은 시기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여성들의 노화 불안을 감소시키고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노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2. 논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중년여성들에게는 고령사회에서의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접근과 노후 생활에 대해 젊은 시기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하겠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의 정기적 급여 생활을 하는 것이 직업가치관과 자아존중감, 성공적 노화 하위변인에 전체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설문조사 결과, 노후소득 보장을 묻는 질문에는 공적연금 42.7%, 부동산 등 재테크 22.1% 순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정기적 급여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53.2%에 불과하여 본인의 정기적 급여생활 82.6%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중년여성이 경력단절 후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지역대학의 입시전형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중년여성들이 학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도내 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이 대표적이다. 학교별 입학정원의 확대 및 교육 커리큘럼의 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에 제약을 받는 오프라인 교육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다수의 중년여성들에게 교육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소수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에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 시켜나가야 한다.

노후소득 보장 및 정기적 급여 생활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이 적립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성 인력개발센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 여성 일자리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확대, 수요자별 욕구조사 및 커리큘럼 개발 등이 요구된다. 또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시 부동산 재테크 프로그램의 확대, 노후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며, 20대부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특강의 주제로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에 대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가치관에서 물질적 보상 추구, 안정성 추구, 생활의 균형 추구, 능력 발휘 추구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능력 발휘 추구가 유의한 영향

이 나와서 이 변수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선주·한영섭(2021)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중장년층의 요구분석 연구에 의하면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중 자기완성지향, 자기만족, 자기수용이 최우선 또는 차우선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연결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론과 논의를 해석하는데 다음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표본수집에 있어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모든 중년여성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지역별, 학력수준별, 소득수준별, 직업군 등 보다 다양한 개별특성을 가진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중년여성들에 국한한 연구에서 연령대별 차이를 분석하였지만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중년남성과 비교하여 중년기 전체를 대상으로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대상 표본이 344부라는 점도 연구결과의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들로 인하여 본 연구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대표성있는 표본 추출을 통하여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제시된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장기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의미 있고 수준 높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 강기은. 2014.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명현. 1994.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선택 및 직업관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신욱. 2009.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주대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원덕. 2009.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혜원. 2012.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연구: 사회적 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
는 영향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귀숙. 1998. “제주도 이혼의 구조적 원인분석”. 『가족과문화』 10(1): 135-176.
- 권양순. 2009. “영적 건강과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백
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중돈·조주연. 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
학』 20(3): 61-76.
- 김귀분·유재희·이은자. 2002. “중년여성의 위기 경험”. 『대한간호학회지』 32(3):
305-316.
- 김경순. 2009. “중년기 부부의 위기와 문제 치유를 위한 가정사역의 방안모색”.
안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배. 2008.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
지학』 60(1): 211-231.
- 김동배·권중돈. 2008. 『인간행동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 서울: 학지사.
- 김동주·고민석. 2014. “경제 활동 상태가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4(2): 137-164.
- 김명자. 1989. “중년의 위기감 및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 김명희. 1999. “중년여성의 건강증진 행위와 갱년기 증상, 우울과의 관계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9(2): 225-237.
- 김민호. 1992. “제주풍속에 적합한 노인복지방안”. 『제주교육대학논문집』 22: 47-88.
- 김미숙·박소미·Wang Chengying·서하얀·주영주·이경열·최은숙. 2010.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만족도 및 직업관”. 『한국응급구조학회』 14(3): 29-40.
- 김병석. 1997. 『진로상담 모형개발 연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보미. 2018.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영향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9): 91-99.
- 김선화. 2012. “중년기부부의 친밀감과 의사소통에 관한 현상학 연구”. 경북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신정. 2013. “성인과 노인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 비교”.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지·이주희·이영주. 2018. “중년 후기 성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요인”.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18(2): 90-97.
- 김영숙·최규련. 2006. “중년기 여성의 내외통제성과 자아존중감이 심리적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173-199.
- 김영순. 2013. “‘강인한 제주여성’ 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애. 2000.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중. 2008.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숙. 2006. “학생의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79-102.
- 김중선. 2016. “한국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종임·한선옥·윤혜선·이지현. 2008. “청년기의 자아존중감, 우울과 자살 생각과의 관계: 전·의경을 대상으로”. 『기본간호학회지』 15(1): 107-113.

- 김종진. 2011. “생활무용참가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와 성공적 노화 인식 및 죽음 수용 태도의 관계”.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영. 1989.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28(1): 163-190.
- 김진윤. 2007.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의 진로장애지각이 직업가치 및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이. 2016. “중년 여성의 일상 생활 스트레스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영적 안녕과 대처기제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54.
- 김충기. 1989.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성원사.
-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 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1-169.
- 김태희. 2007. “직업상담원이 직업가치관과 내외통제성 및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항원·김진영·고성준·강근형. 2000.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 김현정·손정락. 2006.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일상적 스트레스, 반추 및 우울의 관계”. 『스트레스 연구』 14(1): 23-31.
- 김현주. 2007. “기혼여성의 직업가치가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남. 2007.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가 노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숙. 1992. “가족의 성격을 통해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 여성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논문집』 34: 467-485.
- 김혜숙. 1999. 『제주도 가족과 권당』. 제주: 제주대출판부.
- 김혜숙 외 5인. 2001. 『제주여성문화』. 제주:제주도.
- 노준희. 2014. “농촌거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모형”.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류승아·김경미·최인철. 2011. “중년기 여가생활이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 대한 중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4): 415-434.
- 마상범. 2014.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남시 수정구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소령. 2010. “조리전공 학생의 직업가치관이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호영. 2007. “고등학생의 성격유형과 직업가치관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금분. 2008.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미현. 2007. “중년여성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상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상규. 2013. “자아존중감과 마음챙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8(4): 881-890.
- 박수정. 2015. “중산층 여성의 ‘일터로 돌아오기’과정에 나타난 일상의 학습경험, 구성주의 근거이론의 접근”.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아칭·이경혜. 1998. “중년 기혼여성의 역할적응과 자아정체감 형성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학연구』 16: 183-198.
- 박영민. 2011. “남녀노인의 성공적 노화 지각과 생활만족도 관계 비교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윤환. 2000. “전문대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숙·김순자·김소인·전영자·이평숙·김행자·한금선. 1998.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28(3): 638-649.
- 박은하. 2012.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이 지각한 직업가치와 진로장벽이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종한. 2006.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결정요인들”.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형란. 2011.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 과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인자. 2016. “중년기 여성의 직업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석사학위논문.
- 백진숙. 2019. “신중년여성의 ‘신중년’ 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정책』 30: 35-54.
- 변진숙. 2018. “2차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특징이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 성공적 노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경석·이윤정. 2012. “노인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사회참여욕구가 사회참여 활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13(2): 97-124.
- 서명환. 2011. “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은주. 2009. “노인의 성공적 노화 구조모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기월. 2011.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지혜와의 관련성”. 『노인간호학회지』 13(1): 48-57.
- 성혜영·유정현. 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Q 방법론적 접근”. 『한국노년학』 22(2): 75-93.
- 송명자. 1996. “제주인의 시대정신”. 『제주리뷰』 2: 91-99.
- 송성대. 2004. “제주인, 바다, 그리고 아나키공동체”. 『실천문학사제주작가』 12: 22-42.
- 송영순. 2018. “기혼 중년여성의 여가활동 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감사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혜자. 2009. “노인의 역할수행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SOC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행철. 1991. 『제주사회의 기본적 성격. 제주관광문화』. 제주: 제주발전연구소.
- 신행철. 1994. “제주마을의 공동생활권으로서의 성격과 그 변화”. 『농촌사회』 4: 97-125.
- 신행철. 1997.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제주도연구』 14: 53-80.
- 안수민. 2004. “노인의 여가활동 참가유형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은미. 2021. “노후준비교육 참여 중년여성의 예기적 사회화 인식변화”.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정숙. 2010. “초기 성인과 중기 성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정신·강인·김윤정. 2009. “한국 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에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225-245.
- 안정신·정영숙·정여진·서수균·Coney·T.M. 2011. “성공적 노화 연구의 비판적 고찰”. 『한국발달심리학회지』 24(3): 35-54.
- 양점도·이금자·박영국. 2008. “노인의 자아존중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경북 의성군을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 18(1): 1-25.
- 양한주·정철영. 1998. “중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직업선호도 연구”. 『직업교육연구』 17(1): 41-54.
- 오미나. 2003.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자아존중감, 죽음 불안 및 우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창섭·정원길. 2009. “노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노화정도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19(2): 1-26.
- 유송자. 2005. “노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건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광역시 중심으로”.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채옥. 2009. “댄스 스포츠를 즐기는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철인. 1986.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주변사회에 있어서의 적응방식”. 『탐라문화』 5: 71-94.
- 윤양희. 2010. “중년여성 자아존중감의 변인과 향상에 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영애. 2009.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근영. 2020.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노후 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금주·임선영·김수진. 2015.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강인성 및 자아존중감과

- 관계”. 『문화기술융합』 1(4): 51-57.
- 이묘숙. 2012.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노인의 경제상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학회』 57: 289-313.
- 이상주. 2020. “퇴직 준비역량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준. 2008. “성인학습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태도가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 송파구 한림 실업고등학교 여성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춘. 2009. 『다시 태어나는 중년』. 서울: 한문화멀티미디어.
- 이선주·현영섭. 2021. “성공적 노화에 대한 중장년층의 요구분석”. 『휴먼웨어 연구』 4(1): 47-84.
- 이승희. 2019. “30대 기혼여성의 직업가치관에 대한 개념도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신영. 2006. “국내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일고찰”. 『한국복지행정학회』 16(1): 117-136.
- 이옥. 1993. “한국 학생 청소년의 직업개념 인식과 직업가치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15: 32-44.
- 이용호. 2015. “신중년의 존재규명과 소비형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우경. 2008. “중년기 여성의 스트레스, 마음 챙김, 자기-자애, 정서적 안녕감 간의 관계구조 분석과 마음 챙김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윤정. 2012. “직업가치관이 성격유형의 집단별 경력 성공의 차이 연구: 비서직 종사자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석·안찬우. 2010. “노인의 여가 스포츠 활동 참가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49(4): 325.
- 이은아. 2007. “중년기 남성의 가족 및 직업관련 변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6(3): 547-562.
- 이재경. 2015. 『조국 근대화의 젠더정치:가족·노동·섹슈얼리티』. 홍천군:아르케

- 이재창. 1987.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 체제적 상담모형과 의사결정모형을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2: 67-90.
- 이정우. 1997. “중년기 기혼여성의 여가 태도와 여가 행동이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족자원 경영 학회지』 1(2): 79-95.
- 이주영. 2010. “사회복지전공자의 성격유형과 직업가치관 관계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현·강형곤·정우식·채유미·지영건. 2008. “취업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지역 남성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1): 143-156.
- 이창기. 1982. “제주도의 인구성장”. 『탐라문화』 권호: 157-184.
- 이창기. 1992.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연구”. 『제주도연구』 9: 17-35.
- 이창기. 1993. “제주도의 가족제도의 특징”. 『사회문화논총』 8: 71-105.
- 이향란. 2013.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 자아 존중감, 주관적 안녕감에 따른 성공적 노화”.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심·남희수. 2010. “농촌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우울감, 자아존중감 및 사회활동 참여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경기도 여주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7(4): 957-984.
- 박은숙. 1998.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28(3): 638-649.
- 이혜영·서문자·김세안. 2005. “재가 여성 장애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관련 요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5(4): 575-584.
- 이혜진. 2018.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측정도구 개발”.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호길. 2016. “여가활동이 중년기 삶의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관광연구』 12(2): 129-148.
- 이훈구. 1997. 『행복의 심리학』. 서울: 법문사.
- 인원교. 2012. “중년기 성인의 중년기 위기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미희·원정숙. 2009. “노인의 분노, 분노 표현,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8(3).
- 전정자·권영은. 1994. “중년기 여성의 자아개념과 갱년기 증상과의 관계연구”.

- 『성인간호학회지』 6(1): 48-57.
- 정선이·김현주. 2017. “섹스리스 부부의 결혼유지 과정:중년 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1): 89-113.
- 정순돌. 2004. “시설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한국노년학』 24(4): 107-122.
- 정순돌. 2007. “한국여성의 성공적 노후에 관한 연구: 청년, 중년, 노년층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36: 201-219.
- 정연성. 2014. “생활체육 참여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8(상권): 739-750.
- 정옥분. 2008.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주영. 2013. “대학교육만족도, 직업가치관, 직업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윤. 1998. 『제주인의 문화정체성. 21세기 모두를 위한 제주도: 세계섬 학술회의 보고서』. 제주: 제주발전연구원.
- 조옥희. 2004.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역할갈등,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윤주. 2006.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0(3): 1-21.
- 조지혜. 2007.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진희. 2013.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화 예측모형”.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혜경. 2002. “성공적인 노화에 관한 연구: 노인들의 성인학습을 통하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희자. 2002. “중장년층의 실버타운 요구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연주. 2010.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4(4): 263-277.
- 천경인·신윤희. 2020. “중년성인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한국기본간호학회지』 27(3): 259-267.

- 최선미. 1992. “도시 중년기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스트레스 상태: 서울시와 인천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재·장인협. 2010.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최영애. 2003. “노인의 우울, 자존감 및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1: 27-47.
- 최해림. 1999. “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증, 가정적 자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183-197.
- 통계청. 2019, 2021, 2022.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9. 『여성노인의 실태조사: 종합적 여성 노인정책 시급하다』 . 여성: 370-311.
- 한면화. 2021. “중년여성의 갱년기와 삶의 질 관계연구: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매개효과”. 칼빈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미정. 2003.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갱년기 증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유화·정진경. 2007.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 개인주의적 및 집단주의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117-131.
- 한중식. 2009.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허순혜. 2007. “중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직업선호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성희·이경희. 1998.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중노년층의 노후 생활계획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36(10): 1.
- 홍현방. 2003. “성공적인 노화 개념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현방·최혜경. 2003. “성공적인 노화 정의를 위한 문헌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45-154.
- 홍혜영. 2005. “노인의 생산적인 활동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에릭슨의 자아통합 이론 적용”.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길주. 2020. “노인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사회참여활동의 매개효과 검증”. 중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승희. 2012.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도 및 노후생활 교육프로그램 요구도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윤주. 2015. “중년기 기혼여성 재취업과정에서의 학습경험 유형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stin, H. S. 1984. “The meaning of work in women’s lives A Sociopsychological model of career choice and work behavior”.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2(4): 117-126.
- Baltes, P. B., and Baltes. M. M.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and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4.
- Baltes, M. M. and Carstensen, L. L. 1996. “The Process of Successful Ageing”. 『Ageing and Society』 16(4): 397-422.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 New York: McGraw-Hill Publications.
- Chou, K. L. and Chi L. 2002. “Successfull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Chi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4(1): 1-14.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San Francisco : W.H.Freeman』 .
- Cosco, T. D., Prina, A. M., Perales, J., Stephan, B. C., & Brayne, C. 2014. “Operational definitions of successful aging: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6(3): 373-381
- Crosnoe, R., and Elder, G. 2002. “Successful adaptation in the later years: A life course approach to ag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5(4): 309-328.
- Erikson, E. H. 1963.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 New York: W. W.

Norton & Co.

- Erikson, E. H. 1968. "Youth: Identity and crisis". On the generational cycle an add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61, 213-223.
- Featherman, D. 1992. "Adaptation to Old Age". in Aging, Money, and Life Satisfaction, edited by N. E. Cutler, D. W. Gregg, and M. P. Lawton.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Frick, K. D., and Phelan, E. A. 2009. "Can successful aging and chronic illness coexist in the same individual?". 『A multidimensional concept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American Medical Director Association』 10: 87-92.
- Goldthorpe, J. H. et al. 1968. "The affluent worker: Industrial attitudes and behaviou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ter, S. 1985.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Manual". Colorado University of Denver.
- Havighurst, R. J. 1977.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Aging, Let's Learn about Aging. A Book of Reading. J. R. Barry & Wingrove (Eds.)". 『N. Y. Schenkman publishing Co. Inc』 139-148.
- Jung, C. G. 195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Papers on child psychology, education and related subject".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lleberg, A.L. 1977. "Work values and job reward". 『A theory of jobsatisfaction』 .
- Kaluger, G., & Kaluger, M. F. 1979. 『Human Development: The Span of Life (2nd ed)』 . St. Louis, MO: The C. V. Mosby Company.
- Larson, L. 1978.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33(1): 109-125.
-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 New York: Knopf.
- Mannell, R. C., and S. Dupuis. 1996. 『Life Satisfaction in Encyclopedia of

- Gerontology』 . 2, edited by J. E. Birren.
- Maslow, A. H. 1970.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396.
- Neugarten, B. L., & Kraines, R. J. 1965. “Menopausal symptoms in women of various ages”. 『Psychosomatic Medicine』 27: 266-273.
- Peter, C. 2001. “If you got everything, it’s good enough: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in a Canadian Inuit community”.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6(1991): 127-155
- Rook, K. 1997. “Positive and Negative Exchanges: Weighing Their Effects in the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52: 167-16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 Rosenberg, M. 1981. 『Conceiving the Self』 . New York: BasicBooks.
- Rowe, J. W. and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Rowe, J. W. and Kahn, R. L. 1998. 『Successful Aging』 . A Dell Trade Paperback; New York.
- Ryan, Jennifer M., Tracey, Terence J.G., & Rounds, James. 1979. “Generalizability of Holland’s structure of vocational interests across ethnicity,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3): 330-337.
- Ryff, C. D. 1989. “Beyond Ponce de Leon and life satisfaction: New directions in quest of successful ag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2(1): 35-55.
- Schulz, R., & Heckhausen, J. 1996. “A life span model of successful aging”. 『American Psychologist』 51(7): 702-714.
- Tate, R. B., Lah, L., & Cuddy, T. E. 2003. “Definition of successful aging by elderly Canadian males: The Manitoba follow up study”. 『The Gerontologist』 43(5): 735-744.
- Torres, S. 2002. “Relational Values and Ideas Regarding Successful Aging”.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3(3): 417-431.

- Wethington, E., and R. C. Kessler. 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78-89
- Zytowsky, D. 1969. "Toward a Theory of career development of woman".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7: 660-664.

ABSTRACT

The Impacts of Occupational values and Self-esteem of Middle-aged Jeju women on Successful Aging.

Kim, Jin H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o, Kwan 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occupational values and self-esteem of middle-aged Jeju women and how it affects successful aging.

Through this, we intend to provide help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old age as basic data for successful aging of middle-aged Jeju women.

For this purpose, from February 15 to April 30, 2022, a convenient sampling method was used for middle-aged women aged 40 to 64 who were currently residing in Jeju. In order to secure the number of samples, a total of 400 copies were distributed, 350 offline and 50 online. Of the total of 400 copies, 330 copies of offline questionnaires and 28 copies of online questionnaires were retrieved and a total of 358 copies were collected, and 344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14 insincere questionnaires with a large number of non-responses or over the age of the study subjects.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4.0. carried ou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Looking at the average difference

among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Jeju women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t was investigated that having a high educational background and living on a regular salary had a significant overall effect on occupational values, self-esteem, and sub-variables of successful aging.

As for the preparation period, it was found that preparations should be made from the age of 20 had a significant influe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occupational values and self-esteem on successful aging. The result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ffects of occupational status and self-esteem sub-factors on successful aging sub-factors are as follows.

As for the effect on successful aging (total), it was found that among the professional value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mong the pursuit of competence and self-esteem had an effect on successful aging. As for the effect on autonomous lif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mong self-esteem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on successful aging, and as for the effect on self-fulfillment orientation, pursuit of competency among professional values and individualism among self-esteem were successful. Aging has been shown to affect Also, in terms of the effect on active life participatio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mong self-esteem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on successful aging, and as for the effect on child satisfaction, collectivism among self-esteem had an effect on successful aging. appeared to affect Also, in terms of the effect on self-accepta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mong job values and self-esteem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on successful aging. Among self-esteem,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were found to affect successful aging.

Combining the above research results, for middle-aged women, in order to nationally solve social problems in an aging society, prepare new roles in advance in preparation for the coming old age according to the life cycle,

thereby freeing them from anxiety about aging, and ultimately, middle-aged women Support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 pursuit of ability and self-esteem can be further improv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licies and programs that can enhance the educational level of middle-aged Jeju women and enhance their self-esteem. Education renews human beings intellectually, emotionally, and technically and influences the establishment of a positive self-identity. go crazy As education acts as a variable for promoting self-esteem, which is important for successful adaptation to aging, it is necessary to expand productive and active learning opportunities and practice interventions for successful aging by increasing the level of education. Studies to find the factors of successful aging of middle-aged Jeju women area need to be followed up urgently.

Key words : Middle-aged women, Professional values, Self-esteem, Successful aging

<부록>

설문지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직업가치관이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직업가치관이 성공적 노화와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지 문항은 정답이 없으며 모든 문항에 대해 여러분의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한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및 통계 목적에만 사용되고 비밀은 반드시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본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2월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지도교수 : 고 관 우

연구자 : 김 진 희

※소중한 의견 및 문의 : 김진희(이메일주소: 000@hanmail.net)

본 연구에 필요한 귀하의 설문 응답 및 정보제공에 동의하시면 오른쪽 '□'칸에 'V'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I. 다음은 **직업가치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평소 생각하는 직업가치관에 대하여 아래의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나는 직업을 통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많은 보수를 받기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많은 돈 혹은 이를 대신할 물질적 보상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비슷한 조건의 다른 사람보다 봉급이 많은 것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생계유지 이상의 돈을 벌 길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일이 조금 힘들어도 보수가 많길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금전적 보상을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하는 일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길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평생 할 수 있는 일이길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지속할 수 있길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안정적으로 수입이 생기길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쉽게 해고당하는 일이 없길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직업을 바꾸는 걱정을 안해도 되길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일을 떠나 적당한 여가생활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심신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업무나 직업을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사무실내에서 주로 일하며 신체활동을 적게 요하는 업무나 직업을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일과 후에 취미활동을 할 만큼 일이 여유롭길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일하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길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일로 인해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21	일이 즐거워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일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일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 할 수 있는지를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뜻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기를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얻을 수 있길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일이 반복적이거나 정형화 되어 있지 않길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나갈 수 있길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자기분야에서 최고가 되길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일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길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어려운 일에 도전하여 달성하길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일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길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스스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여 성취감을 맛볼 수 있길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행동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문항에 V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젊은 세대의 입장을 잘 수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자녀나 남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지나온 삶이 보람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하는 활동(일, 취미 등)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평생토록 하고자 하는 활동(일, 취미) 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남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원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자녀들은 형제자매간에 서로가 우애있게 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나의 자녀들은 나에게 효도를 잘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외모를 단정하고 깨끗하게 가꾼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에게는 여가 혹은 종교활동 등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한 친구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산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자녀들의 가정은 화목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기회가 되면 남을 위해 물질을 기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지금도 정신이 맑아서 사리분별에 큰 문제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에게는 마음을 터놓을 만한 친한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내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가능한 남에게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사회활동(여가 및 종교 활동 등)에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내 분수에 맞는 의식주 생활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8	내가 참여하는 모임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친구들을 잘 사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항에 V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목표한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경쟁에서 잘 이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가끔 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행동으로 잘 옮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할 말은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의 일을 스스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주위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속한 집단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와 가까운 사람들(가족, 친구)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남들을 잘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속한 집단의 조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